

#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운용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Maeul-Mandeulgi in Suwon

김주석 Kim, JuSuck

## 김주석

요코하마 국립대 사회공간시스템학(건축/도시)박사, Ph.D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행위원(마을의제)  
(사)인간도시컨센서스 운영위원  
tinkneti@suwon.re.kr

**SRI**(Suwon Research Institute)

### ! 연 혁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수원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2013년 3월 28일 설립

### ! 설립목적 !

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운용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Maeul-Mandeulgi in Suwon

2014

---

## 연구진

연구책임

● 김주석 / 도시환경연구부장, 연구위원

연구원

● 김용국 / 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장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 개요 및 결과

본 연구는 수원시가 민선5기 이후 도입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적 실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1차적 연구로 현장에서의 운용과정 고찰을 통해 현실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주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개념을 확인하고 이에 더해 과거 수원권역에서 이루어진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온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문화적 근거를 확보 한다.

또한, 민선5기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 고찰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를 발굴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을만들기’는 ‘행정의 영역이었던 도시공간 관리에 대한 공동체적 주민활동’에 주목한 것으로 ‘지역의 계획 및 사업수행,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루어가는 제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이다.

수원권역에서는 마을만들기라는 제도적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사례가 있어왔으며, 그들 사례의 특징을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 자주적 판단 능력 함양 교육을, 물리적으로는 공동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공동체를 강화해 왔다.’ 특히, 현실

적 과제도출과 문제해결에 있어 구성원의 존중과 상호협력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현 수원의 시정방향과 일맥상통하며, 현대적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원시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민들에 의해 먼저 받아들여 실행되어 졌는데,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공동체 중시, 세대간 교류, 체계적 개념교육, 협동적 체험중시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개선에 필요한 사업의 다양한 실행 방안을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매우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활동주체들의 역할은 향후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발전단계와 각 주체역할목표

	주민	지원전문가	행정
① 계기형성 및 씨앗그룹 단계	씨앗그룹활동	인식고양 활동계획	주민교육 계기마련
② 활동심화 및 마을조직화 단계	활동구체화 마을협의회 형성	조직화 마을계획	조직인정 계획인정
③ 마을전체 목표상 수립 및 민관협동의 주체적 실현방안 모색단계	마을협의회	전문지원	파트너지원

### ① 계기형성 및 씨앗그룹 단계

자생적 주민모임이 지역에 대한 과제를 구체적 대안이나 활동목표를 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씨앗과 같은 존재로 지역에서 활동을 도모하는 단계로, 그들의 고민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주민 : 개별 개인 및 조직이 지역의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 지원전문가 :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통한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 및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과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 행정 : 지원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며, 개별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활동심화 및 마을조직화 단계

- 주민 : 지역의 개별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체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통해 활동동료를 확대한다. 폭넓고 체계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조직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조직으로서의 주민조직을 구성한다. 특히, 주요 계획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실행의 주체로 역할한다.
- 지원전문가 : 행정에 의해 제공된 사업실행 활동과정에서 사업자체의 목표성과의 달성 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대응을 중시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의 확대를 유도·지원하면서, 지역에 잠재하는 다양한 역량의 주민들을 발굴,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마을 및 마을주민 특성에 맞춘 사업 발굴 및 사업실행방안의 기획, 그리고 사업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신문 등의 방안을 소개하는 등 주민들이 공동체적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활동과정에서 대두된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조직의 활동비용 및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 등 사업화이전단계 혹은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마을전체 목표상 수립 및 민관협동의 주체적 실현방안 모색단계

- 주민 :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이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넘어서 마을의 전체적 목표상으로서 마을계획을 수립, 보완해 나가면서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사업화와 새로운 사업의 침착 등을 추진한다.
- 지원전문가 : 전문적인 지원영역으로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개별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조직과 파트너적 관계설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가 ‘지역의 계획 및 사업 수행 그리고 유지 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루어지는 제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임을 재확인할 때,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제도는 우선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 조례상의 마을르네상스의 정의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가 지향하는 바는 주체로서의 주민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을만들기 주체 면에서 민관협동의 관점이 부족하고, 활동목표에 있어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없이 새롭게 한다고 정의함에 따라 재개발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방식마저 포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운용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에는 지원조직으로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고, 추진조직인 ‘마을만들기 협의회’제도가 있으며, 동단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사업제도로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있으며, 지역현장에서의 주민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로는 ‘마을르네상스센터’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마을계획’, ‘마

을만들기 협의회'제도 이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의 현장 실행기관으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교류, 정보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의 계기 제공 및 인식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운용면에서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 전문가 파견등 지원내용 및 목표, 공모사업 실행 이후의 유지관리 및 후속과정의 대응, 마을만들기 활동 및 정보거점으로서의 르네상스센터의 역할 등의 면에서 몇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은 사업성 위주로,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성이나 열정 보다는 사업내용을 견실하게 정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방식이다. 주민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정도를 우선할 수 있는 심사방법 및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현장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모사업 자체의 원활한 수행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업방안 모색 등 주민조직 및 그 활동의 강화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역량을 갖춘 전문가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모사업 실행이후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보면, 한번이라도 공모사업을 준비한 지역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사업과정을 통한 참여주민들의 조직체계 강화 및 조직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공동체적 역량이 강화되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수행해 가고자 하는 주민조직들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는 공모사업 중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동체 및 공간조성에 비해 신청 및 선정 비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향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마을)전체로 확장되는 경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시설설치에 대한 비용조달 방안 및 해당 시설을 주민조직에 위탁하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언제나 주민들이 찾아가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교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방문자가 자유로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활동주체들의 소식지발간에 대한 유도·지원과 해당 소식지들의 수집·정리 및 상시배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에 의해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관리되는 조직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립된 마을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불일치, 주민생활권과 행정동간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마을만들기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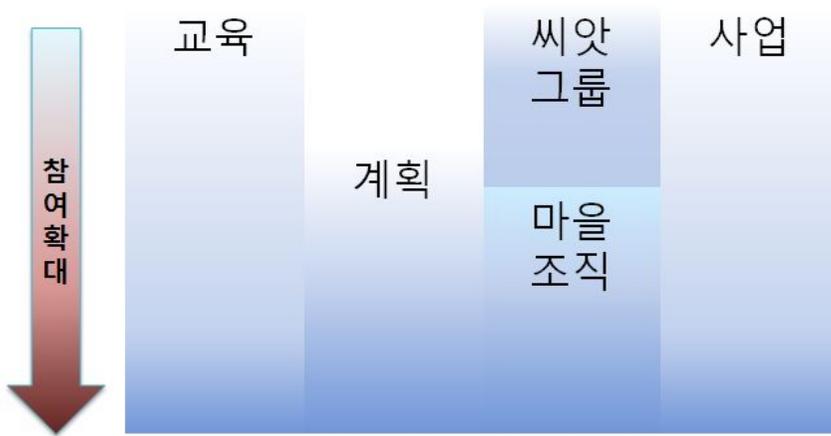
마을계획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 마을계획으로, 마을계획의 의미, 목표, 생활권과 계획권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① 구성원의 적적성
- ② 활동목표 불명확
- ③ 지역전체 정보발신 기능 부재: 새로운 중간보고기관
- ④ 기능과 목적 불명확
- ⑤ 제도적 지위 불명확 : 실행담보력 미비

이에 두 제도는 그 설정 목표와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바탕으로 두 제

도를 연계하는 등 제도운용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그림〉 마을만들기 주요활동 진행체계

마을만들기 제도운용에 있어 모든 주요활동들은 행정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경영조직으로서의 마을조직을 형성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연동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활동은 모두 공동체적 참여확대를 위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주민주체의 지역관리방안 논의에 있어 마을계획은 주민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수정·보완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법정 정비계획은 수립 절차가 정해진 이유가 있고, 용도지역 등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사항의 수정 및 계획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의 제언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는 시 주도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기실 수원시민

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며 시 당국은 현실 행정의 한계 속에서 그에 부합되는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비추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행정이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의 기재를 제공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의지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강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한계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과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보다는 행정의 대응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조직 및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만들기의 진전에 따른 대응체계 등 주민활동의 활성화 및 진전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준으로서는 미비하다.

최근 보여진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주민대표의 확대와 같이 주민들의 파트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과제로는 먼저 마을만들기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마을 르네상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조직화 및 활동 강도에 맞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며, 해당 지역공동체 조직과 행정간의 파트너적 관계 설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활동목표로서의 실질적인 마을계획 수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수행 그 자체보다는 공동체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실행 및 사업실행 과정을 통한 공동체 육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씨앗그룹 활동이 마을전체 활동으로 확장된 경우 거점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요구가 증대할 것에 대비한 시설설치 재정확대 및 성숙해진 주민활동주체가 지역시설에 대해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현장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장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의 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부언하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공동체 활동이 선행·지속되고, 이러한 활동에 기반하여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공동체 조직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조직의 활동강도에 근거하여 공간이 조성·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 전역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현황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현재의 체제의 강화방안은 물론, 최초 백지상태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1) 지역공동체 .....	3
2) 주민참여 .....	6
(1) 행정재정의 한계 .....	6
(2) 민관협동(協動)에 의한 지역관리 .....	7
3) 수원형 마을만들기 정책의 모색 .....	8
2. 연구의 목적 .....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1. 연구의 범위 .....	11
2. 연구의 방법 .....	11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3
1.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전개 .....	13
2. 선행연구 고찰 .....	17
제2장 주민주도의 자생적 마을만들기 .....	19
제1절 개화기 이후 수원권역의 유사사례 .....	21
1. 오산 삼미마을 .....	21
2. 화성 샘골마을 .....	22
3. 유사사례의 특징 .....	23

## 제2절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전개특성

:세류3동 마을만들기 .....	24
1. 세류3동 지역 개요 .....	25
2. 주요 경과 .....	26
3. 마을만들기 진행특성 .....	30
1)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화 과정 .....	30
2) 마을계획 수립과정 .....	38
3) 주체(주민, 전문가, 행정) 및 역할관계 .....	39
4)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지원 .....	40
4. 수원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특징 .....	41

## 제3장 수원시 마을만들기 제도 현황 .....

### 제1절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

1. 마을르네상스의 개요와 개념적 정의 현황 .....	47
2. 마을르네상스 지원체계 .....	48
1) 민관협동 심의·자문기구 .....	49
2) 행정조직 .....	50
3) 중간지원조직 .....	51
4) 주민대표조직 .....	52

###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지원제도 .....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	54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개요 .....	54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목적 .....	54

(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원칙 .....	55
(3) 공모사업 유형 .....	55
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절차 .....	57
3) 공모사업 심사 .....	57
(1) 심사방식 .....	57
(2) 심사 평가기준 .....	58
4)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현황 .....	60
(1) 공모사업 추진현황 일반 .....	60
(2)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	61
(3) 공모사업 추진 주민조직의 연속성 .....	63
5)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특성 .....	64
(1)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특성 .....	64
(2) 구별 신청현황 특성 .....	66
(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현황 특성 .....	70
6)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활동 .....	73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활동 개요 .....	73
7)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특성과 과제 .....	75
(1) 심사기준 .....	75
(2) 주민활동 지원 .....	76
(3) 사업이후 유지관리 .....	77
(4) 공동체적 역량 강화에 따른 단계적 대응 .....	77
(5) 마을르네상스센터 강화기능 .....	78
<b>2. 수원시 마을계획 .....</b>	<b>79</b>
1) 수원시 마을계획 제도도입의 배경 .....	79
(1) 인구급증 .....	79
(2)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	79

2) 마을계획의 필요성 .....	80
3) 마을계획단 운영과정 .....	82
(1) 운영방향 .....	82
(2) 운영체계 .....	83
(3) 일정 및 내용 .....	85
4) 수원시 마을계획 제도의 과제 .....	92
(1) 마을계획단 운영결과 .....	92
(2) 수원 마을계획의 과제 .....	94
<b>3.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b>	<b>96</b>
1) 마을만들기 협의회 필요성 및 목적 .....	96
(1) 마을만들기 협의회 정의 및 필요성 .....	96
(2) 마을만들기 협의회 목적 .....	96
2)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	97
3)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계획목표 .....	97
(1) 마을 조사 분석( 민간분야 ) .....	97
(2) 마을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	98
(3) 마을 조사 분석 및 우수주체 사업비 확보( 행정분야 ) .....	99
4) 마을만들기 협의회 추진 과정 .....	99
(1)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	99
(2) 마을만들기 협의회 추진 중간 점검 .....	100
(3) 향후추진계획 .....	103
5) 마을만들기 협의회 한계와 과제 .....	103

제4장. 결론 .....	107
1. 연구 개요 및 결과 .....	109
2. 연구의 제언 .....	115
참고문헌 .....	119
영문요약 .....	123
부록 .....	127

# 표 목 차

표 2-1	세류3동 버드네마을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과	29
표 3-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절차	57
표 3-2	마을르네상스 일반공모 서류심사(70점) 평가기준	58
표 3-3	씨앗공모 사업 서류심사기준 및 평가표	59
표 3-4	심사 시 공통확인사항	60
표 3-5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동별 추진현황	61
표 3-6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62
표 3-7	마을단체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 년 수	63
표 3-8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64
표 3-9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현황	66
표 3-10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비신청현황	68
표 3-1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평균사업 신청금액변화	69
표 3-12	지역별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현황 건수비교	70
표 3-13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비신청현황	72
표 3-14	마을르네상스 센터의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73
표 3-15	수원시 마을계획단 회의구성	82
표 3-16	운영진 역할 분담	84
표 3-17	지원조직별 역할	84
표 3-18	구별 운영진 구성	86
표 3-19	장안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89
표 3-20	권선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89
표 3-21	팔달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90
표 3-22	영통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90
표 3-23	최종발표회 우수마을 수상동	91
표 3-24	구별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마을계획결과 분석 종합	93

표 3-25 주요 학습 커리큘럼 .....	98
표 3-26 워크숍 토론결과 .....	100
표 3-27 마을만들기 협의회 실제 운영상 과제 .....	102
표 4-1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발전단계와 각 주체별 역할목표 .....	110

# 그림 목 차

<그림 I-1> 코르뷔제의 모듈러 .....	3
<그림 1-2> 한정된 행정예산에서 유지관리와 행정기능의 관계 .....	6
<그림 I-3> 연구방법 .....	12
<그림 2-1> 세류3동 구역도(다음지도) .....	25
<그림 2-2> 세류3동 '상류천 표석', '장승' 설치 .....	26
<그림 2-3> 세류3동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	27
<그림 2-4>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 창립 등 .....	27
<그림 2-5> 제1회 세류동 천변문화제 등 .....	28
<그림 2-6> 산제당 주변 벽화 등 .....	28
<그림 2-7> 산제당 복원 및 제례 모습 .....	30
<그림 2-8> 버드네 장승 건립 및 장승흔레 모습 .....	31
<그림 2-9> 대동제 모습 .....	31
<그림 2-10> 버드네 역사문화교실 등 .....	31
<그림 2-11> (청소년)버드네 역사문화교실 등 .....	32
<그림 2-12>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 창립 등 .....	33
<그림 2-13>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도시대학 참여 .....	33
<그림 2-14> 제1회 천변문화제 .....	34
<그림 2-15> 장안면과 결연식, 장승, 장안면 농산물 장터 .....	34
<그림 2-16> 제2회 천변문화제, 한하운시비 안내판 설치 .....	35
<그림 2-17>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작업 및 청소작업 .....	35
<그림 2-18> 세류동 문화충전소(커피나무) .....	36
<그림 2-19> 마을만들기사무소, 마을신문, 어린이기자단, 배포모습 .....	37
<그림 2-20> 세류3동 SWOT분석과 대응전략 .....	38

<그림 3-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구도 .....	49
<그림 3-2> 사업종류 및 보조금 한도 .....	56
<그림 3-3> 2013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기공모사업 구별 비교 .....	62
<그림 3-4> 공모사업 참여연수 .....	63
<그림 3-5>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	65
<그림 3-6>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구성비 .....	65
<그림 3-7> 지역별 마을르네상스사업 신청현황(2012년도) .....	66
<그림 3-8> 지역별 마을르네상스사업 신청현황(2013년도) .....	67
<그림 3-9>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사업비 신청비율 .....	69
<그림 3-10>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조성비율 .....	71
<그림 3-11> 마을르네상스 사업 선정 비율(2012, 2013) .....	72
<그림 3-12> 수원시 도시면적 변화 양상 .....	79
<그림 3-13> 마을만들기 시대적 상황 .....	80
<그림 3-14> 수원 도시계획과 마을계획 .....	81
<그림 3-15> 마을계획의 필요성 .....	82
<그림 3-16> 수원시 마을계획 지원조직 .....	83
<그림 3-17> 마을계획 추진과정 .....	85
<그림 3-18> 마을계획단 발대식 전경 .....	86
<그림 3-19> 팔달구 구별회의 운영과정 .....	88
<그림 3-20> 마을계획단 최종발표회 전경 .....	91
<그림 4-1> 마을만들기 주요활동 진행체계 .....	115

---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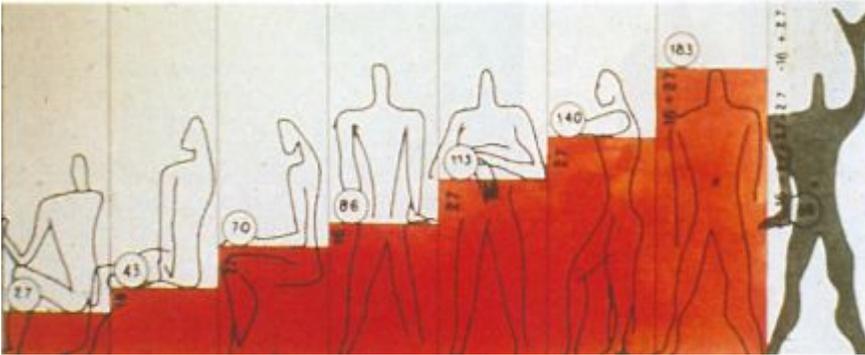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지역공동체

현대도시의 도시계획은 대량생산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한 근대 산업혁명 이후,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계에 대한 찬미와 더불어 사회시스템의 양적 생산성위주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인간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조차 기계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분석적 모듈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난 철강과 기계에 대한 믿음, 산업에서의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효율성에 대한 중시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주의 및 기계주의 등 당시의 철학사조에 의해 강화되었다<sup>1)</sup>.



〈그림 1-1〉 코르뷔제의 모듈러(장 장제르, 1997:94)

이에 따라 도시공간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을 담아내는 다목적 공간 보다는 특정의 활동에 특화된 공간으로 구분되고 그러한 공간지정에

1) 주방계획(가구 및 기구의 개발 포함)에서 강조되는 ‘시스템 키친’ 등은 기계주의적 가치관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맞추어 인간의 도시활동이 규제되었으며, 이는 현대 도시계획에 있어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로 대표되어진다.

도시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도 도시 구성주체인 시민에 대한 특성화 보다는 세계의 경제·문화를 주도하는 주요국가의 주력도시를 모델로 하여 객관화되고 범용성 있는 수치화된 평가지표를 통한 표준화가 주류를 이루어 왔고, 이는 현상학적으로 ‘코스모폴리탄’, ‘세계도시’ 등의 용어를 통해 확인되어 진다.

한편, 거주민을 중시하는 커뮤니티(공동체) 단위의 도시계획도 강조되었는데, 서구유럽의 1850년대 이후 도심과 교외를 잇는 철도교통의 확충과 도시 황폐화·슬럼화에 따른 중산층의 교외이주 등 경향 및 사회주의적 자급자족체계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하워드(Ebenezer Howard, 1902)에 의해 주창된 전원도시운동 등이 대표적이며, 제이콥스(Jacobs, 1961)에 보다 일반화된 적용방안의 모색이 보여진다.

※도시계획 있어 인간의 일상적 생활, 삶의 중요성의 반영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그 이론적 토대가 정리되었음.

※제이콥스(J. Jacobs): 미국 대도시의 생과 사(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 도시정비에 있어 기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공동체)의 중요성 인식
- 도시 슬럼의 철거정책, 공원이나 광장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재개발계획 부정
- 토지이용의 혼합, 건축/인간의 다양성 반영



제이콥스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시정비에 있어 기존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슬럼의 철거 후, 공원이나 광장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재개발 계획을 부정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혼합적 토지이용과 인간(건축 포함)의 다양성 반영이 필요함을 주창하였다.(Jacobs, 1961:151)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지속성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계획수립과 해당 지역 주민의 계획참여에 관한 논의로 진전되었으며, 테일러 등

에 의해 당시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논점들이 정리되었으며 (Ralph B. Taylor 편저, 1986), 국제적으로도 Brundtland Report(UN, 1987)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sup>2)</sup>)이 제창되고, Rio summit(UN, 1992)을 통해 이의 실현을 위한 Agenda 21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재개발(urban renewal) 및 뉴타운 개발 방식이 아니라<sup>3)</sup> 지역공간(특히 가로망)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도시가로망의 유지와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rehabilitation)에 관한 논의가 주요 화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sup>4)</sup>.

거주민을 개별적 존재가 아닌 지역 공간과 관계하는 집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지역 공동체(community)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삶이 강조되고 자연스럽게 사회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며, 결과적으로 주거지의 환경개선은 당해 거주민의 복지와 융합된다.

**Community 중시 → 다함께 → 저소득층도 함께  
: 주거지 환경개선 & 거주민 복지 (융합)**

- 2) 지속가능한 개발: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mplies 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y Brundtland Report,
- 3) 기존 도시구조 및 거주환경을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방식의 재개발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였으나, 기존 거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슬럼을 형성하였기에 도시전체적으로 볼 때 재개발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 4)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개발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의해 생존형 범 죄증가와 더불어 집단화 양상에 따라 더욱 대상지 거주환경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 등 정부재정의 한계 등에 의해 미국에서는 기존 도시재개발 정책이 1963년 폐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개발의 근본적 목적과 개발수혜자에 대한 재점검을 바탕으로 개발방식면에서 수복형 개발방식이 도입되었다.

## 2)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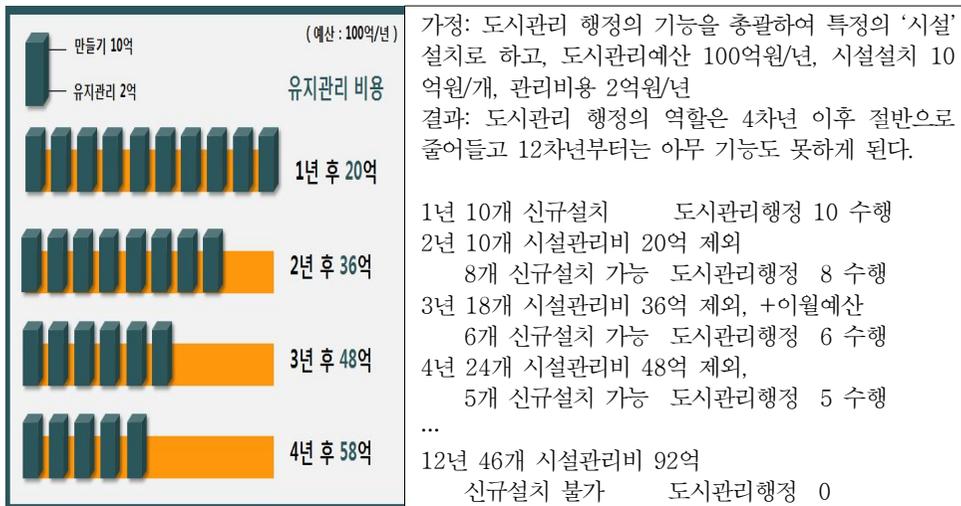
경제성장의 한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정참여 요구증대 및 시민활동 강화 경향은 지방정부의 행정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 기능의 유지관리 효율화와 시민참여강화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민관협동이 정책방향으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의 대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 행정재정의 한계

경제규모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행정재정의 확충은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나, 행정서비스의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도시관리 서비스 및 시설의 확대는 해당 공간 및 서비스의 설치비용에 대해 유지관리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지관리비용의 증대를 억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우려가 있다.



〈그림 1-2〉 한정된 행정예산 상황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행정기능의 관계

따라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수요의 대응은 물론 행정기능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도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sup>5)</sup>이 매우 중요해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경향도 도시관리 정책방향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인구규모, 특히 생산인구가 정체·감소되고, 고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도시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굴·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용도혼재 등을 통해 공원 및 직장 등을 주거와 근접하게 배치하고, 일인세대에 대한 현황적 대응은 물론 가족중심의 여가대응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복지 및 지역공동체 강화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 (2) 민관협동(協動)에 의한 지역관리

기존 도시의 지속성을 위한 행정의 재정효율화 관련활동에 더해, 이용자가 직접 유지관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도시공간의 사용자인 거주민의 관리활동에의 참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용·수익자 부담이라는 비용의 부담의 당위성 확보 측면은 물론,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도 접근될 수 있다.

도시거주민의 도시공간관리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된 계획단계에서의 이용자(거주민) 참여는, 대상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을 함양은 물론, 그 활동 자체가 도시공간에 대한 거주민의 관심을 증대하는 기제로서 역할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에의 참여활동이 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을 비롯한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간의 이해당사자인 거주민들의 참여 활동과정과 내용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요구된다.

5) 재정한계 극복은 신규 행정재원 발굴도 중요하며, 특히, 기존의 가치의 유효활용 등 창조적 행정서비스 및 경제 운용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창조적 재원발굴 방안은 본 연구의 대상범위에 두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정 지역을 범위로 하는 주민들과 행정의 상호 간섭을 통한 지역단위<sup>6)</sup>의 민관협동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고, 결과적으로 행정파트너로서 공공이 인정하는 주민대표조직(공공성 확보, 활동 지원, 주인의식 강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주민조직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관변단체와 달리 협의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활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요구 된다. 조직의 구성과정도 지역내 강한 활동 성향의 주민 소그룹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해당 그룹 활동을 지역 전체 주민들로 확대해 나가거나 지역 내 여타 소그룹들과 연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역 내 일반 거주민들이 전문적 도시 관리 활동 및 계획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전문인력양성(행정, 주거, 건축, 도시, 사회)이 요구된다.

※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 도시관리에 있어 지역단위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적 흐름을 풀뿌리 민주주의의에 기반한 시민운동의 확산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존재하며, 이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 일정부분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도시관리에 있어 행정기능에 대한 한계성에 대한 방안으로 대체적 활동으로서 시민활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도시관리에 있어 공공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내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 3) 수원형 마을만들기 정책의 모색

선진각국에 비해 현대적 가치체계에 편입이 다소 늦었던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에 있어 많은 경우, 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 변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 제시되어 온 것은 주지의

---

6) 도시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범위에 대해 공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종의 공동체로서 공감하는 영역을 가지며, 이를 우리는 마을 혹은 동네라고 지칭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역행정의 협력을 통한 지역계획·관리 정책수단으로서의 마을만들기는 양적으로 수치화되고, 지표화되어 일반화될 수 있어 세계 어디서나 표준화된 방식으로의 전용이 가능하였던 기존의 도시관리 방식과 달리, ①현지 거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②세계적으로 아직 모범적이고 완성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관련 방안모색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스스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색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성된 선진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지원전문가의 마을만들기 실현을 위한 요구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협력적 지역활동의 강화’, ‘지역의 지속적 유지관리의 효율화’ 측면 보다는 지난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비의 효율성’ 및 ‘사업성’ 중시, 전문가중심의 진행 등으로 지역 분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마을만들기 자체도 일반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문분야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특정 항목의 평가를 통한 자격증제 전문가 공급방식까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동체 기반의 지역활성화를 정책기조로 하는 휴먼시티 수원(민선5기)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도 전문 행정부서의 설치와 지원센터(마을 르네상스센터) 설립, 동단위 마을계획단 운영과 마을계획의 수립, 동단위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등 선도적인 정책수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행에 따른 소정의 성과가 보여지고, 선도적 정책수행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회자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활동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활동의 진전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계획은 계획수립에 참여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행

정 측면에서도 해당 계획의 위치와 활용에 대해 확신이 없는 실정이며, 마을협의회는 마을만들기의 지역 대표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의회 구성원 자체도 협의회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동, 현장에서의 실정이다. 한편 이를 총괄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도 각 제도들의 수립방향이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정책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도수행 현황을 중심으로 모색,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원형 마을만들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제도방안 제시가 최종목표이다.

다만, 본 연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 연구로서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민선5기 이후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현황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주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개념 확인에 더해 과거 수원권역에서 이루어진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온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문화적 근거를 확보 한다.

또한, 민선5기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운용 현황 고찰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과제를 발굴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수원형 마을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민선5기 이후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 시행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역사적 사례 고찰에 있어서는 공간적으로는 수원권역(오산, 수원, 화성)을, 시간적으로는 근대로 일컬어지는 1900년대 이후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자활추진 사례,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 목표 및 실행체계, 마을만들기 사업실행 현황을 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 주민과 행정 및 주민간 역할관계, 실행절차 등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내용, 계획주체, 계획 수행 및 관리주체, 유지관리 관련현황, 개별사업간 관계 등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행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과제를 도출한다.

### 2. 연구의 방법

#### □ 민선5기 정책방향 및 실행체계의 구체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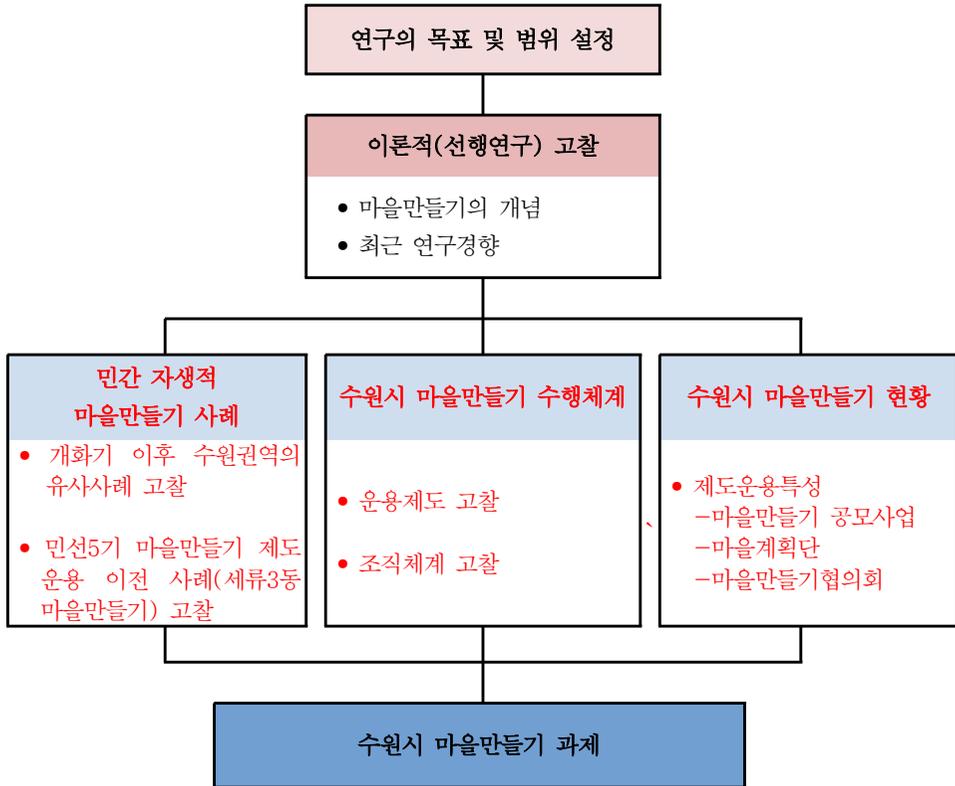
- 문헌고찰 : 정책발표자료, 시 홈페이지 , 신문기사, 사진 등
- 관계자 인터뷰 : 행정 및 활동가

#### □ 마을만들기 사업 실행현황조사

- 관계자 인터뷰 : 행정, 활동가, 실행관계 주민
- 문헌고찰 : 관계 작성문서 및 보고서, 신문기사, 사진 등
- 현장확인

□ 민간자생적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 관계 전문가 자문 및 탐문
- 문헌고찰
- 현장확인



〈그림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민선5기 마을만들기현황과 현행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타 자치 단체의 마을만들기 정책의 비교평가는 연구범위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제도운용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시민인식조사는 연구인력 및 비용의 한계로 설문 등 체계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주요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 주민들과의 교류회 등을 통해 제도운용에 관한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인식은 확인하였다.

##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전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마치즈끄리(まちづくり)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석, 1999; 송혜승외, 2008). 이에 마을만들기의 의미고찰에 있어 마치즈끄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마치즈끄리라는 용어는 ‘町づくり(마을만들기)’, ‘街づくり(가로만들기)’ 양쪽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는 한자로 쓰지 않고 음가만을 나타내는 ‘まちづくり’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마치즈끄리는 ‘마을만들기’이며, 동시에 ‘가로만들기’이기도 한 것으로, 마치즈끄리의 지향 목표가 정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마을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로나 외부공간에서의 활력 있는 모습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의 마을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치즈끄리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제도적 틀인 도시계획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지관점에서 도시의 ‘공간’을 ‘계획’하고 공정, 평등, 자립 등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업’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타카미자와 미노루 편저, 2006:68-73).

일본에서는 공공의 복지관점, 요컨대,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주로 국가·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도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행정이 주체가 되어 행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일종의 반대명제로서,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주민운동’에 기초한 도시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후에 ‘마치즈끄리’로 불리워진 주민의 주체적 활동으로 발전하였고,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가로환경의 보전 등, 주로 도시계획에 관계된 분야에서 사례가 축적되고 일정의 성과를 올려왔다.

부서나 제도의 틀 안에서 수직적 연계만 있고 수평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정책과는 달리, 주민은 스스로의 생활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폭도 자연히 넓다.

현재 마치쓰끄리 활동은 그 영역을 점점 넓혀, 좁은 의미에서의 도시계획의 범주에 그치지 않고, 복지나 환경 등의 분야도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을 다루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마치쓰끄리는, 지금은 ‘지역을 좋게 하기 위한 주민주체로 행하여지는 활동’의 총칭처럼 되었다. 당초는 도시계획에의 대항운동으로서 위치되어져있던 것이지만, 도시계획의 영역을 넘어서 크게 영역을 넓히고 있고, 도시계획은 지금은 마치쓰끄리의 일부분으로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주민주체의 마치쓰끄리 연구 네트워크, 2009:9-10)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은 15세기 훈민정음으로 해석한 두보(杜甫)의 시 「江村」에서 처음 나타난다.<sup>7)</sup> 마을의 의미는 ‘사람이 모인 곳’으로 활용되었으며 ‘말’을 간다거나 ‘마실’을 간다는 언어생활에서 보여지듯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이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신작로가 아니다. 통과를 위한 직선의 도로도 현대의 냉랭한 골목도 아니었다. 울퉁불퉁 꼬불꼬불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셋길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였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였다. 따뜻함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현대의 도시에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통적 의미의 마을이란 장기간의 정주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의 공동체였고, 운명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도시 유목민이라는 용어에 많은 공감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현대 도시민의

---

7) 「강촌」의 첫구절 ‘淸江一曲抱村流’의 촌(村) ‘마을’로 풀이 하였다. 아래아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ㅁ와 ‘ㅅ과 ㅈ’의 중간음으로 발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탈락되면서 ‘ㅁ을’을 거쳐 ‘마을’이 된 것으로 國語史는 풀이한다.

삶에 있어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무리를 짓고 공동체적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다.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는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의 안전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자기보호적인 것으로 생겨났고, 공동체는 앞으로도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추구되어질 가치라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들의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정비하고 가꾸어 나가는 ‘새마을 운동’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가 소개, 진행되었고,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민관협동을 통한 도시관리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관심이 고조, 각 지자체들의 주된 선거공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길을 내고 지붕을 개량하는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경제적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면 1990년대의 마을만들기는 담장을 허물어 이웃과 소통하면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접근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체 활동의 방법론으로서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관개선을 고려하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이 적용되었다.<sup>8)</sup>

한편, 아래 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마을만들기와 사회경제적 개념의 결합에 대한 고민도 있어왔다.

“이상촌 운동은 훗날 북간도, 연해주로도 펼쳐 나아갔고 반백년

---

8)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는 등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마을만들기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이자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시각화 된다는 점에서 벽화그리기 등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의 계기로서 보다는 점점 더 양질의 디자인성이 강조되는 등 마을 미화사업으로 진행되어 마을의 특성화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후 대한민국에서는 세 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원주의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대성학교의 정신을 이은 대성학원을 세우시고 신용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펼치셨으며, 홍성의 이찬갑 선생님은 오산학교의 정신을 이은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생 홍성에서 이상촌 마을 일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문화 유전자에는 무의식 깊이 이상촌이 내장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다룸에 있어 그 사업내용을 통한 정의 보다는 공동체<sup>10)</sup>적 주민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도시공간에 대한 행정의 제어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공간관리를 포함하는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주민활동은 대상 지역의 관할 행정활동과의 협력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민관협동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대다수 행정은 기존의 도시관리 행정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을만들기에 접근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주체는 행정자신이며, 주민들은 그 행정활동에 대한 협력체, 즉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 관계설정에서 지역 공간관리의 파트너로서의 주민들의 조직적 활동 보다는 행정활동의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활동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보여 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정 개별 주민그룹에 의한 정비·개선 등 단위 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파트너로서의 지역 관리활동의 주체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

9) 2013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15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공동체문화 워크숍에서 경기문화재단 양원모 팀장(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이 발표한 원고이다.

10) 미국의 사회학자 힐러리는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마을만들기가 공동체의 회복 또는 형성에 있다고 한다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은 간과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공간관리로서 정비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계획 및 사업 수행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 하며 이루어가는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마을만들기를 고찰함에 있어 마을 주민 들에 의한 공공성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주목하였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마을만들기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사람 이 반가운 도시, 수원’의 마을만들기의 정신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현대 적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나라다운 마을만들기, 적어도 수원다운 마을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도시관리에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한계 속에서 향후 도시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지역단위의 실천적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 적 틀로서의 마을만들기의 발전적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로 연구방법론 면에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기초로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 을 모색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정석, 1999)이 강조되고 구체적 사업지원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목정훈외, 2008)이 제시되었다.

‘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과정에서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보다 유효한 ‘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방안에 관한 연구(신중진 외, 2008)와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 있어 주체간 관계에 있어 민간주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밝힌 연구(이박세훈 외, 2009)가 있었고, 마을만들기 사업진행에 따른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진행과정에 따른 추진주체별 성격 및 관계구도, 특성 등 거버넌스의 형태변화(이윤석 외, 2008; 신중진외 2010; 이규선 외, 2012)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제도체계 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밝힌 연구(윤혜영, 2013) 등이 있으며, 지속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주민조직에 의한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목표로서의 계획과정 및 계획내용, 계획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화과정 및 사업특성 분석 등을 통해 제도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김주석외, 2007)가 있다.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하여 행정과 협력을 통한 주민의 주체적 활동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자생적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그 정신적 기반을 확인하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용현황 고찰을 통해 수원시가 수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을 확인하고 수원형 마을만들기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

## 제2장

# 주민주도의 자생적 마을만들기

제1절 개화기 이후 수원권역의 유사사례

제2절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전개

특성 : 세류3동 마을만들기



# 제1절 개화기 이후 수원권역의 유사사례

본 절에서는 ①마을만들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 시점에서의 사례로 아직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으로 마을만들기의 특성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활성화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 1. 오산 삼미마을

1920년대에 당시 수원의 한 지역이었던 성호면 외삼미리(현 오산시 외삼미동)에서 윤학영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산 삼미마을에서 500여년을 이어온 가문의 한 분이신 삼은(三隱) 윤학영(尹學榮, 1898-1966)선생은 추오급인(推吾及人) 즉 나로 하여금 미루어 남을 생각하게 하라를 가훈(家訓)으로 당시 마을주민인 농민들이 다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삼미마을은 자작농(自作農) 중심으로 흉년에도 보리고개를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또한, 마을 한가운데는 주민들의 문맹퇴치를 위하여 1923년 4월4일 삼미의숙을 개교(교장 윤학영, 교실 12칸, 운동장 129평, 교사 2명, 학생 85명)하여 9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현재 삼미초등학교로 이어오고 있다.

그의 열성으로 마을엔 윤지 중중학계(宗中學契)가 생겨 이를 후원했으며, 사재를 털어 월사금 등 학비 및 학용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생활터전이 급선 문제라고 생각한 선생께서는 1934년 약 60여 농가 가운데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네 다섯 가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의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소작농이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 땅 만들기 자작농계(自作農契)를 조직 하게 된다.

이 운동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자작농을 영위하는 지주를 설득하여 금융조합에서 돈을 융자하게하고 소작농들에게 자기농사를 짓게 하였다.

천수답으로 하늘에만 의존하던 농사를 위하여 삼미 제1, 제2저수지를 마을사업으로 축조하여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뭄에 대비하는 농업을 이룩하였다. 1936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농업실습학교를 만들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배우게 하여 우수한 농업인이 되게하여 영농지도자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11)</sup>

## 2. 화성 샘골마을

최용신 선생은 함경남도 덕원(德原) 출신으로 식민지 수탈에 의해 피폐된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이다.

당시 그는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는 생각에서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1929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총회 때 협성학생기독교청년회의 대표로 본격적인 YWCA의 농촌계몽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1929년에는 황해도 수안(遂安)과 강원도 포항에 파견되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용신은 1931년 10월 YWCA 파견교사로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반월면(半月面) 샘골(천곡; 泉谷)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1934년부터 YWCA의 보조금이 끊어지고 학원의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던 중 지나친 과로로 사망하게 되었다(1935.1.23) 그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행적은 심훈(沈熏)의 소설 『상록수(常綠樹)』에서 실제화 되어 농촌운동의 귀감이 되었다.

---

11) 윤의영, 「사이다」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농촌계몽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야학·강연회·생활개선·근검저축 등을 통한 민족 역량 강화는 주요한 실천사항이자 목표였다. 구호나 슬로건은 관변 주도에 의한 농촌진흥운동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농촌살리기’라는 자발적인 농촌계몽운동이었다.

그녀는 생을 마감하는 직전까지 샘골마을이 한국사회의 ‘이상적’인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였다. 지속적인 샘골강습소 운영에 대한 부탁은 농촌계몽운동 불씨를 더욱 되살리는 의도였다.<sup>12)</sup>

### 3. 유사사례의 특징

상기의 2가지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을 유도, 전개한 대표적 사례이다.

정신적인 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현실적 문제를 운명이나 숙명으로 돌리던 기존의 관습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타인의 의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물리적으로는 공동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가며,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선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실적 과제도출과 문제해결에 있어 구성원의 존중과 상호협력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현 수원의 시정방향과 일맥상통하며, 현대적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12) 안산시 홈페이지

## 제2절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 전개특성 :세류3동 마을만들기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마을만들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례를 고찰한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제도의 근간을 규정하는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2010.12.29.)이전을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나타난 마을만들기 관련 움직임을 보면 하면, 먼저 1997년 조례에 의해 설립된 수원의제 활동이 있는데, 환경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2000년 마을주민 열린학교를 시작하는 등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단위의 주민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종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소통창구로서 역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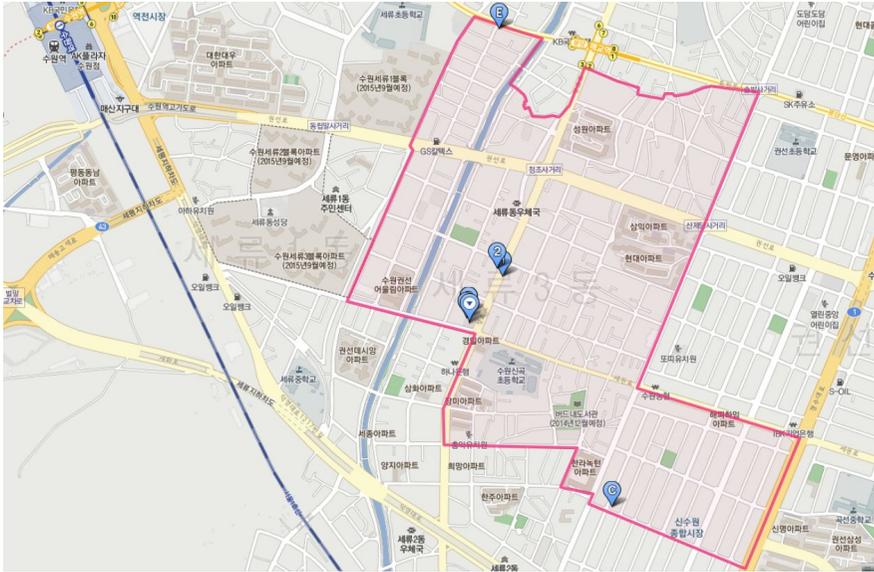
한편, 2007년에는 수원시의 쇠락한 원도심인 행궁동 일대에서 공공 예술가들의 참여적 시민활동을 들 수 있다. 행궁동 레지던시가 만들어지고, 빈집 미술전시회, 각종 벽화 및 활동거점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다만 상기 2가지는 외부인의 지역내 활동이 주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활성화 움직임으로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2006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을 근간으로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세류3동 마을만들기를 살펴본다.

# 1. 세류3동 지역개요

세류3동은<sup>13)</sup> 수원역의 동남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면적은 1.29km<sup>2</sup>이다. 아래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가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정형화된 가구구조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고령인구와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한다. 북서쪽으로는 수원천이 관통하며 흐르고 있다.



<그림 2-1> 세류3동 구역도(다음지도)

세류3동의 마을만들기는 2006년 시작되어 2010년 ‘세류3동 좋은마을 만들기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4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당시 세류3동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는 31명으로 시작되었다.<sup>14)</sup>

13) 1899년 『수원군읍지』에 ‘세동리(細洞里)’, ‘상류천(上柳川)’, ‘하류천(下柳川)’의 지명이 나타난다. 1914년 일제의 동리명칭과 구역변경으로 상류천과 세동을 세리(細里)라 하였다. 1936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세리는 수원읍으로 편입되어 세류정(細柳町)이라 하였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세류동(細柳洞)이 되었다. 1966년 세류1동과 세류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3년 세류2동이 세류2동과 세류3동으로 분동되었다.

14) 고문(민한기, 조명자, 이동준), 자문위원(김상희, 김도근, 김충관, 최춘일, 오태식,

## 2. 주요 경과

세류3동은 2006년 주민들이 모여 우리 마을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시범사업에 공모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 지원을 통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가시적 사업에 돌입하였다.

당시의 목표는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자’였다.

그 첫 작업은 정조의 거동길에 세워진 상류천(上柳川) 표석을 옮겨 세우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작업은 지역에 전하는 장승백이라는 지명을 기념하여 지역의 상징으로 장승을 세우는 것이었다. 마침 <대동지지>에 장승이 세워졌으며 지역의 옛 이름이 삼거리로 당시 세워진 장승이 이정표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승의 이름을 세류동의 오랜 마을의 이름인 버드네에서 가져와 ‘버드네대장군, 버드네여장군’이라 하였다.



〈그림 2-2〉 세류3동 ‘상류천 표석’, ‘장승’ 설치

2007년 세류3동 버드네 사람들이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당집이 새롭게 중건되면서 산제당 제사날인 음력 10월 초하루를 기하여 버드네 풍물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장승고사, 산제당 제사, 경로잔치 등을 펼치고 이를 이름 하여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라 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더불어 사는 마을,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라는 장승을

---

이 호), 회장(김용국), 부회장(조광복, 전유금), 감사(임은순), 사무국장(이미정), 재무(이상훈), 교육홍보위원장(이근호), 문화복지위원장(이오연), 마을사업위원장(허경덕), 회원(박승권, 김용준, 김양수, 유희수, 이희진, 차충근, 이태호, 송성순, 이희승, 김광영, 박찬호, 함미영, 이재수, 이창배, 이정우, 강경진, 홍승범, 김민권, 장석태, 조용원, 박미자, 임영남, 김영호)

세웠으며, 2009년에는 ‘전통이 있는 마을, 번영하는 마을’이란 장승을 세우게 되었다.



〈그림 2-3〉 세류3동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 풍물놀이, 산제당제사, 장승세우기)

2010년에는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창립하였고,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는 도시대학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동준 동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녹색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림 2-4〉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 창립, 도시대학 이수, 공모사업 수상

2010년10월16일 ‘제1회 세류동 천변문화제’를 개최하여 1949년 월남하여 세류동 천변에 살다간 문동이 시인 한하운의 ‘보리피리 시비’를 세우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마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5개의 화단을 조성하고 국화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류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화성시 장안면 자치위원회가 상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도록 중매하고, 이를 기념하여 ‘남제장류대장군’, ‘분향황라여장군’이라는 장승을 세우고, 장터를 운영하였다.

동년, 12월 4일 L·H공사가 선정하는 전국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sup>15)</sup>

15) 전국에서 L·H공사가 운용한 도시대학을 수료한 팀 가운데 4개 권역 2개 팀씩 8팀



〈그림 2-5〉 제1회 세류동 천변문화제, 한하운 시비, 장안면 자치위원회 자매결연

2011년에는 산제당 주변을 정화하는 초등학교 등굣길과 연계하여 한편 옛이야기와 인문지리적 특성을 되살려 벽화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회장 김용국)’가 수원시에서 주는 마을 만들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회장 이오연)’는 ‘세류 문화충전소(커피나무)’를 지정하고 2011년 활동사진과 화가인 이오연 회장의 그림 등을 전시하였다.

2012년에는 녹색화단조성사업을 전개하여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 등에 화분 등을 배치하는 등 미화작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마을만들기 협의회 회원 홍승범이 제공한 건물에 ‘세류 문화충전소’를 개소하고, 협의회 사무 및 회의 등 활동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주민교육과 나눔장터를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힐링’을 운영하였으며 ‘리폼아트, 버닝, 천연염색, 전래놀이, 놀이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6〉 산제당 주변 벽화, 녹색화단, 문화충전소, 찾아가는 문화힐링

이 발표하고 민간이 주도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초청되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로 세류3동은 L·H공사 사장상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표 2-1 세류3동 버드네마을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과

2006년	행정안전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시범마을로 선정
2007년	상류천 표석 이전 설치 장승배기에 마을장승 건립 버드네 산제당 복원 제1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음력 10월 1일) : 버드네 풍물단 길놀이, 장승결혼식, 산제당 제사, 경로잔치
2008년	버드네 역사문화교실 운영 '더불어 사는 마을', '행복이 넘치는 마을' 장승 건립 제2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 버드네 풍물단의 길놀이 및 산제당 제사 거행
2009년	버드네 역사문화교실 운영 '전통이 있는 마을', '번영하는 마을' 장승 건립 제3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2010년	푸른경기21 도시대학 참여 한하운 보리피리시비 건립 우리동네 화단만들기 세류3동 좋은마을만들기 협의회 추진위 구성 및 추진 화성시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세류3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화성시 장안면 농산물 장터 운영 '남제장류대장군', '분향황라여장군' 장승건립 제4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음력 10월 1일) 제1회 천변문화제 (한하운 시비 제막, 백일장, 그림전 ) 푸른경기21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 LH 도시대학 특별상 수상
2011년	산제당 벽화사업 : 이야기를 따라가는 등하교길 신곡초등학교 무궁화 식재 수원시 마을만들기 최우수상수상 세류 문화충전소 지정(커피나무) 제5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제2회 천변문화제
2012년	마을신문발행 제6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제3회 천변문화제
2013	마실길(화단가꾸기) 조성 사업중 제7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제4회 천변문화제 세류문화충전소 독립이전
2014	찾아가는 문화힐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지원) :리포아트, 버닝, 천연염색, 전래놀이, 놀이미술 제8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제5회 천변문화제

### 3. 마을만들기 진행특성

#### 1)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화 과정

세류3동의 마을만들기는 지역 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진 및 활성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은 2007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발점이 된 내용은 지역에 방치되고 잊혀져 가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건한 것으로, 주택가 골목에 방치되어 있던 상류천 표석<sup>16)</sup>을 왕래가 잦은 정조로변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것, 지명에 맞추어 장승배기에 건립한 버드네 장승, 산신을 모시며 지역의 안녕을 기리던 버드네 산제당의 복원을 꼽을 수 있다.



〈그림 2-7〉 산제당 복원 및 제례 모습

특히, 이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버드네장승의 건립과 산제당 복원을 지역 토박이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전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와 통합적으로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로 제1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가 개최되었다. 버드네 풍물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을에 산제당 제사와 장승혼례 및 장승건립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마을역사의 산 증인인 경로당회원들을 모시고 마을 잔치로 진행되었다.

16) 사도세자 능을 참배키 위하여 행차하는 길에 설치한 이정표(5리마다 설치)



〈그림 2-8〉 버드네 장승 건립 및 장승흔레 모습



〈그림 2-9〉 대동제 모습

2008년에는 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행복이 넘치는 마을’ 장승을 건립하였으며, 제2회 버드네 한마을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 제사)를 개최, 대동제를 정례화 하였다.

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은 세류3동 주민조직의 회원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던 마을행사 ‘버드네 한마을 대동제’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정례화(매년 음력10월1일) 하였고, 마을의 공동체적 기원을 담아, ‘더불어 사는 마을’, ‘행복이 넘치는 마을’을 가슴에 새겨 넣은 장승을 건립하였다.



〈그림 2-10〉 버드네 역사문화교실, 더불어 사는 마을 장승, 한마을 대동제 정례화

2009년에는 (청소년) 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제3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를 개최하였으며, ‘전통이 있는 마을’, ‘번영하는 마을’ 장승을 건립하였다.

(청소년) 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은 세류3동 다음세대를 이어갈 지역 청소년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함께 확인하는 버드네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지역 내 세대간 교류 증진을 도모한 사업이다.



〈그림 2-11〉 (청소년)버드네 역사문화교실, ‘전통이 있는 마을’ 장승

2010년에는 ‘세류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푸른경기 21 도시대학에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고, 제4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개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 제1회 세류동천변문화제 개최, 한하운 보리피리 시비 건립, 세류3동주민자치위원회와 화성시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장안면 농수산물 장터를 운영하였다.

다양한 지역의 공동체활성화 관련 행사 및 활동 등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어가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창립된(2010.7.28.) 세류동 좋은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행사인 대동제의 추진을 물론, 새로운 행사의 기획 및 타

지역 주민조직과의 연계, 마을화단가꾸기 등의 공모사업 등을 기획, 실행하게 되었다.



〈그림 2-12〉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 창립, 마을 화단 가꾸기, 한하운 시비 설치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운영하는 도시대학에 참여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마을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다양한 마을과제를 확인하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2-13〉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도시대학 참여

특히, 그간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대동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방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문화자원을 복원하고자 제1회 세류동 천변 문화제(한하운 시비 제막식, 주민이 준비하는 체험 참여마당 운영, 백일장, 그림전 개최, 주민노래자랑)를 개최하였으며 부제를 피리축제로 하였다. 피리축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단순한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버드네의 버들피리와 한하운 시 보리피리, 그 밖에 풀피리, 나무피리 등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봄철은 청소년축제, 가을은 어른들을 위한 축제라는 이원화된 마을축제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림 2-14〉 제1회 천변문화제(한하운 시비 제막식, 피리축제)

지역 공동체 활동의 전개에 있어 세대간 교류를 확대를 위한 방안모색의 한 방법으로, 쉽게 이야기되는 직접적인 세대간 혼합운영 방식보다는 각 세대별 특성에 집중한 행사를 진행하고 이의 운영 및 실행을 각 세대 참여자들이 교류하며 진행함으로써 별도의 세대간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높이 평할 수 있다.

한편, 세류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화성시 장안면 자치위원회가 상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도록 중매하였으며, 장안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장터도 운영하였다. 또한 이를 기념하고자 ‘남제장류대장군, 분향황라여장군’<sup>17)</sup>(장승)을 세류동 어린이공원에 세워 이를 기억하고, 알리고자 하였다. 양 지역은 도·농간의 화합과 상호상생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각각 장승을 깎아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매결연의 의미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로컬푸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져 있다.



〈그림 2-15〉 장안면과 결연식, 장승, 장안면 농산물 장터

17) 남제란 1825년 순조대에 쌓은 세류동 제방의 이름이며, 분향이란 현재 남양만으로 불리는 지역의 본디 이름이다.

이상의 사업과 일련의 과정은 한 마을이 갖는 인문학적 기억을 끌어내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마을화단 가꾸기 사업과 같이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방치되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의 경관 및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서 접근되었다.

2011년에는 제5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 및 제2회 세류동천변문화제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 설치한 한하운 시비에 더해 한하운 시인 안내판을 추가로 직접 설치하였다.



〈그림 2-16〉 제2회 천변문화제, 한하운시비 안내판 설치

한편, 수원시 르네상스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마을벽면조형과 안전속도 유지시각화조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산제당 골목길 정화와 벽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세류3동 소재의 신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등하교길이 즐겁고, 아름다우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역에 전하는 옛이야기와 문화적 자원들을 벽화로 그리는 사업이었다.



〈그림 2-17〉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작업 및 청소작업

벽화작업에는 노인정과 유치원생,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답게 초기 계획된 벽화를 그리는 작업뿐만 아니라 미관상 열악한 쓰레기가 무단투기 지역을 정화하고 꽃밭을 가꾸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역 내 상점인 ‘커피나무’를 ‘세류 문화충전소’로 지정하고 그간의 활동 사진을 전시하고 그림으로 그려 나누고 베푸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꾀하였으며 그간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8〉 세류동 문화충전소(커피나무)

2012년 제6회 버드네 한마음 대동제 개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 제3회 세류동천변문화제 개최, 녹색화단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쓰레기 등의 투기로 인한 지역의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화단을 제작하고 이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마을만들기 사무실을 마을에 자리잡은 이상훈회원의 공간(명성 인테리어 할인매장)을 활용하여, 개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마을신문’을 기자단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제작하고, 직접 배포하였다. 그 외에 마을 화단가꾸기 사업 이래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온 마을의 녹색환경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1가정 1화분 갖기 운동인 ‘녹색 꽃마을 르네상스사업’ 등을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2-19〉 마을만들기사무소, 마을신문, 어린이기자단, 배포모습

2013년 제7회 버드네 한마을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와 제4회 세류동천변문화제를 개최하였다.

기존에 커피나무에 있었던 '세류 문화충전소'를 홍승범 회원이 제공한 공간으로 독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 명성인테리어(이상훈 회원)에 있던 '세류3동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 사무실도 '세류 문화충전소'로 통합 이전하였다.

공간이 확보되면서 문화충전소를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와 더불어 나눔장터를 운영 하였다.

2014년에는 매년 지속되어 온 제8회 버드네 한마을 대동제(장승제, 길놀이, 산제당제사) 및 제5회 세류동천변문화제를 개최 하였고, 그간 세운 장승의 보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수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에 응모 하여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연령 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경로당의 어른들에게는 전래 놀이를 통하여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버닝, 리폼아트 등을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 2) 마을만들기 지역활동 전개과정

### ① 1단계(2006년 ~ 2009년): 지역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 관심증대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화합을 바탕으로 마을의 문화 역사적 전통을 밝혀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다 함께 참여하는 지역 정비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② 2단계(2010년 ~ 2011년): 활동심화 및 조직화 단계(마을만들기 학습심화와 사업전개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 및 마을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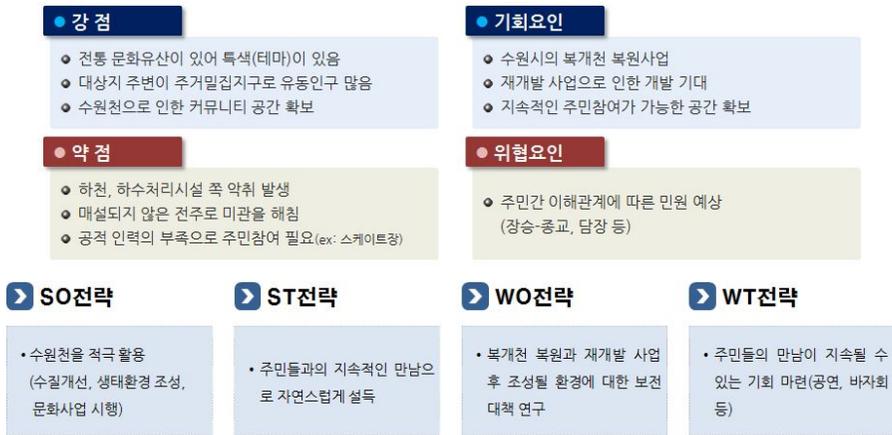
마을의 몇몇 주민들만 참여해서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거의 모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기존의 공동체적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주체로서 마을만들기 주민대표 조직인 세류3동 좋은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운용한 도시대학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 주체(통친회, 주민자치위원회, 버드네연합회, 새마을 문고)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활용하여 일부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주민들에 의한 마을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 ③ 3단계(2012년 ~ 2014년): 마을계획 실현 심화 모색

수원시가 2013년 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 동단위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하였는데, 행정이 구성, 지원하는 추진주체가 기존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기존 세류3동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별도로 진행하는 등, 모호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수원시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 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등의 공모를 통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20〉 세류3동 SWOT분석과 대응전략

### 3) 주체(주민, 전문가, 행정) 및 역할관계

세류3동은 토박이 주민조직인 버드네 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행정이 협력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초기 과정에서는 지역 출신이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역사·문화분야의 전문가(김용국 동아시아 전통문화 연구원장)가 결합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내 역사·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버드네 연합회 등으로 대표되는 세류3동의 토박이 주민들은 그간 산제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마을의 공동체의인 산제당 제사를 지역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고, 참여 전문가는 이를 중심으로 세류3동의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이 마을만들기의 방향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한편 마을만들기가 특정 목적사업의 달성보다는 공동체적 참여와 그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사업목표 및 활동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 또한 중요하였다. 행정은 초기과정에 주민 조직과 전문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세류3동의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고 이를 행정이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13년 이래 행정이 주도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마을계획단, 좋은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운용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존 지역조직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 전역에 걸쳐 사업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률적으로 적용<sup>18)</sup>함에 따라, 세류3동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마을만들기 활동 전개에 비해 오히려 행정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다.

한편, 세류3동 좋은마을만들기 협의회장이 민속학 전공자에서 화가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더해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이 세류3동 문화충전소를 거점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체적 역량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4)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지원

세류3동 버드네 마을에서 이루어진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로 지역내 거주민 등에 의한 프로그램 발굴과 직접시행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기관에 의한 지원은 2006년 행정안전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운용하는 도시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마을 계획작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 및 계획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한편, 수원시가 지원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화단 가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의 지원 대상지로 선정 되어 진행되었다.

---

18) 마을만들기 활동과정을 통해 활동의 구심점 및 목표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동 행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외부용역인력을 넣어 지도하는 형식으로 시행하였음.

## 4. 수원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특징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공동체적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세류3동과 못골시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류3동의 경우 마을만들기 진행상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역 내 선구적 주민에 의한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만들기, 조직만들기로서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하였다.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고, 복원함에 있어, 주민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적 마을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이를 정례화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변축제 및 마을신문 등을 기획 실행하면서, 세대간 교류는 물론 세대를 잇는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이러한 가치관을 확산하였고, 마을만들기 활동과정을 통해 주민들을 조직화 하였으며, 마을의 전체적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벽화 및 시설물의 기획단계는 물론 정비·조성과정에 주민이 함께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실행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중시, 세대간 교류, 체계적 개념교육, 협동적 체험중시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개선에 필요한 사업의 실행에 있어, 시 행정에만 기대지 않고, 공간 및 행사수행에 있어 직접수행 및 직접부담을 포함하여 타 행정기관 지원제도의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주체적으로 모색, 발굴하였다.

세류3동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 단계별 관련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씨앗존재 및 계기형성 단계

아직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이

지역의 과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과정은 없  
이, 자생적 주민모임이 지역에 대한 과제를 구체적 대안이나 활동목표를  
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씨앗과 같은 존재로  
지역에서 활동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그들의 고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을 현실화 하는 최초 계기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였다.

- 주민 : 개별 개인 및 조직이 지역의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제해결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지원전문가 :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통한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 및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과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 행정 : 지원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며, 개별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을 지원하였다.(중앙정부)

#### □ 사업화 및 활동전개를 통한 조직화 단계

- 주민 : 지역의 개별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정  
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체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통한 동료를 확대한다. 폭넓고 체계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조직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  
하고, 활동조직으로서의 주민조직을 구성한다. 특히, 주요 계획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실행의 주체로 역할하였다.
- 지원전문가 : 행정에 의해 제공된 사업실행 활동과정에서 사업자체  
의 목표성과의 달성 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대응을 중시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의 확대를 유도·지원하면서, 지역에 잠재  
하는 다양한 역량의 주민들을 발굴,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마을 및 마을주민 특성에 맞춘 사업 발굴  
및 사업실행방안의 기획, 그리고 사업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신문 등  
의 방안을 소개하는 등 주민들이 공동체적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활동과정에서 대두된 사업을 지원하였다. 다만, 주민조직의 활동비용 및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 등 사업화이전 단계 혹은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은 제공되지 못하였다.

#### □ 마을의 전체 목표상 수립 및 주체적 실현방안 모색단계

- 주민 :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이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넘어서 마을의 전체적 목표상으로서 마을계획을 수립, 보완해 나가면서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사업화와 새로운 사업의 탐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전문가 : 전문적인 지원영역으로 역할이 축소된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개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전체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견에 기반하여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처리 등 주민들이 합의한 활동 및 계획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계획단 및 마을협의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그 운용에 있어 세류3동에서 보여준 주민 자생적 마을만들기 조직과정과 그 활동에 연계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류3동의 행정입장에서도 지역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고민이 다소 부족하여 기존 활동에 대한 소외, 혹은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이 존재하며, 이들도 아우르는 것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전체의 의견수렴과 활동에의 참여유도를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존 조직이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대로 지역의 대표조직으로 인정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이의 보완 방안이 요구된다.



---

## 제3장

# 수원시 마을만들기 제도현황

제1절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

수원시가 마을만들기 정책을 도입한 이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마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해온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모임, 고색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활동, 교육 및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칠보산공동체,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의 공동체활동을 전개하는 꽃피마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각 조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 등 추가적인 후속 연구 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 제1절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 1. 마을르네상스의 개요와 개념적 정의현황

민선5기 이후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초기 도입단계(2010-2011)에서는 지역문화와 마을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지역형 마을르네상스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조직체계 구축 마을현황 및 자원조사, 마을공동체 구축,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추진, 시민의 자발적 참여체계마련, 마을르네상스 세미나 개최를 진행하였다.

실제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정책수행 방식을 보완·확대하여, 수원만의 창조성과 독특함이 가미된 수원형 마을르네상스로 추진전략을 수정하고,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사례 발굴 및 콘테스트 개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수원시 자체의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개최, 전국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등 타 시도의 마을만들기 활동과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였다.

마을르네상스의 정의를 보면, 2011년 6월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만들기 모델구축을 위한 마을르네상스 포럼에서 처음 주창되었는데, ‘주민이 스스로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시민운동’이었다. 이후 2013년2월5일 제정된 수원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에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의 정책브랜드를 말한다.’ 고 정의되었다.

현행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

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의 정책브랜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는 ‘주민’, ‘살고있는 마을’, ‘스스로’, ‘삶의공간’, ‘새롭게’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을르네상스가 지향하는 바는 주체로서의 주민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마을르네상스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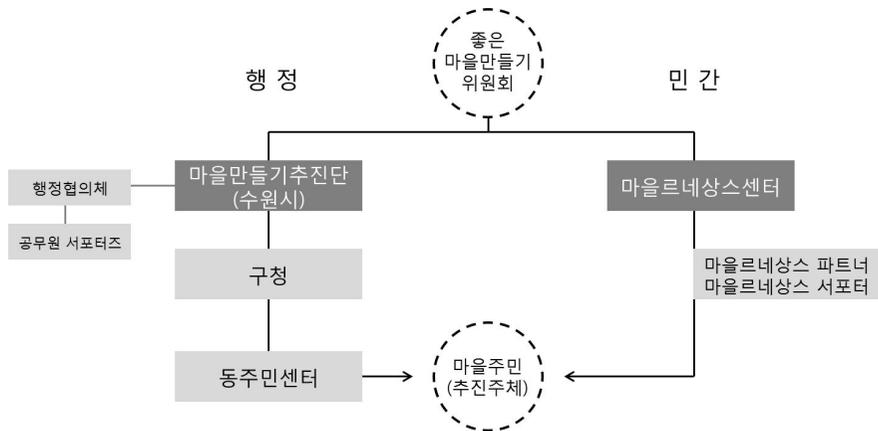
수원시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협의회’, ‘마을르네상스 센터’, ‘마을만들기 추진단’ 등 행정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왔다.

조례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행정의 대응기준으로 기능하며, 주요 내용은 현재(2014.9.) 다음과 같다.

- 총칙 : 목적, 정의, 책무
-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교육 지원 등
- 마을만들기 협의회 : 동단위
- 마을르네상스 센터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 공모사업
- 포상, 마을계획사 등.

마을르네상스를 위한 실질적인 주요 정책수단은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이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구성하는 최고 심의·자문기구로서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두고, 행정 내부에는 마을만들기 추진단과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공무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계획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동단위의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구도 (수원시, 2013)

## 1) 민관협동 심의·자문기구 :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의와 시장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민관협동 기구로서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조직으로 마을만들기의 연간 운영계획 및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제안 사업 승인,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적 결정사항을 심의한다.

행정 및 시의원,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및 마을만들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30명으로 구성된다.<sup>19)</sup>

19) 임기2년, 2차례에 한해 연임가능,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중 주민대표는 초기 2명이었으나 보다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5명(총 30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행정은 제2부시장과 마을만들기·환경·도시계획·문화체육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수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시민 대표가 맡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이 수행한다.

연2회의 정기회의 이외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전개에 있어 행정부서를 넘어서는 종합적 행정 대응을 위해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행정 조직 : 마을만들기 추진단, 행정지원협의체, 공무원 서포터즈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전담부서로서의 마을만들기 추진단, 종합적·전문적 행정사항 검토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 자발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서포터즈의 3가지 조직이 있다.

### ①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로서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주된 업무로는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주무부서로서 마을만들기 종합·기획 및 추진, 중앙부처 및 경기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마을르네상스 센터 위탁 운영,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공무원서포터즈 운영,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예산·회계, 마을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며, 마을르네상스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교육, 국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마을르네상스 홍보 등을 수행한다.

## ② 행정지원협의체

시청내 마을만들기 관련 20개 부서<sup>20)</sup>로 구성되며,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대한 법규정의 검토 및 공모사항에 대한 타당성, 기타 행정 계획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 공모사업과 연계방안 및 적정성 검토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공무원서포터즈

시청 공무원중 자발적 신청자로 구성되며,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자문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의 마을르네상스서포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 3) 중간지원조직 :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계획사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의 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 양쪽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로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전문가로서 마을계획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르네상스 센터의 역할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보고 등 행정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등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및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

20)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건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경제정책과, 녹지경관과, 회계과,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물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도서관사업소 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확보 등을 수행한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될 수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은 3년을 단위로 하고 있다. 현재 수원의제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센터인력<sup>21)</su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주체간의 정보 공유 및 주민과의 연계, 마을르네상스 모니터링, 공모사업 관련 서류작성 및 안내 등 주민활동 지원의 실무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단체, 작가(예술가), 연구자, 청년벤처, 대학생·대학원생 등과 민간 파트너·서포터 관계를 맺고 운용하고 있다.

## ② 마을계획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마을계획사로 시장이 위촉·운영할 수 있다.

주된 업무로는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 등을 수행한다.

지역단위의 마을계획사 육성을 위해 르네상스센터는 일반 지역 주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계획사 교육을 운용하고 있다.

## 4) 주민대표조직 : 마을만들기 협의회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두고 있다.

협회의 주된 기능은 동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간의 의견조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

---

21) 2014년9월 현재 센터장의 직원5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등을 수행한다.<sup>22)</sup>

협의회의 구성은 동장이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나 관련 자원봉사활동가,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중 적정 비율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별도의 고문<sup>23)</sup>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위원 중 한명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한다.

월 1회 정기회의 외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관련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22) 동 단위에서 다양한 주민조직들의 조율을 통한 조화로운 마을만들기의 전개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협의회 구성과정, 구성원의 마을만들기 관련 이해도와 활동경험, 지역내 마을만들기 활동조직간의 관계에 의해 세부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구성되어 의도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전개에 있어 새로운 지역 갈등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행궁동의 경우는 기존 동내에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조직들과 구성 및 역할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지 못해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23)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

##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지원제도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에는 지원조직으로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고, 추진조직인 ‘마을만들기 협의회’제도가 있으며, 동단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사업제도로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도 중, 지역현장에서의 주민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로 판단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마을계획’,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살펴본다.

###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sup>24)</sup>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주민들 그룹이 요청하는 지역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개요

#####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목적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으로, 단기간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

24) 마을르네상스 센터(2012, 2013) 참조

구체적으로는 도심속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간의 교류활성화, 주민들에 의해 수립되는 마을계획의 실현수단, 구도심 낙후지역의 점진적 환경개선 수단으로 기능한다.

## (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원칙

주민요구와 역량에 맞는 사업추진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규모
-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공익성과 시대성의 반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을 위한 사업추진
-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마을르네상스 정체성 확립

- 마을과 도시에 대한 관심증대
- 삶의 문화와 생활공간의 회복

## (3) 공모사업 유형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 씨앗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 공모사업은 다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설조성사업, 공간조성사업으로 구분된다.

### □ 일반공모사업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마을조사 및 소식지 발간·배포, 문화·예술·스포츠 등 주민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베품시장, 세대간·계층간 나눔·교류·봉사 등 복지서비스, 마을축제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한도는 500만원이다.
- 공간조성사업 : 텃밭조성, 벽화 및 꽃길조성 등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보조금한도는 2000만원이다.

- 시설조성사업은 북카페, 동아리 모임공간, 마을갤러리 및 마을회관 등의 주민교류시설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조금 한도는 4000만원이다.

□ 기획공모사업

도시사회 현안을 고려하여 마을르네상스 센터가 시와 협의하여 특정 주제분야(생태교통, 재활용리폼, 신재생에너지, 도시농업,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공간활용 등)를 선정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보조금 한도는 사업당 1억원으로 가장 크다.

□ 씨앗공모사업

2013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사업으로 일반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의 사업이다. 주민들간의 모임형성 및 내실 있는 사업구상도모를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금 한도는 사업당 1백만원으로 가장 작다.

사업방식		사업유형		사업비(천원)	
마을르네상스	정기공모	수시공모	공동체 프로그램	5,000 (10,000)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2회이상 추진한 주체는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비 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함		시설조성	20,000	
	기획공모		공간조성	40,000	
	기획공모 테마는 변경될 수 있음		도시농업	1억원 이하	
씨앗공모		재활용 리폼			
		신재생에너지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공간활용			
		주민모임형성	1,000		
도시르네상스	정기공모	수시공모	시설조성	10억 이하	
			공간조성	10억 내외	

〈그림 3-2〉 사업종류 및 보조금 한도

## 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절차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 추진’ → ‘평가’의 4단계로 진행되며, 추진절차상에 있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중간평가 후 보조금 중 초기에 지급하지 않은 잔액을 지급하고 있다.

표 3-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절차

공고·접수	공모사업공고	공모사업 설명회
	공모사업접수	전문가 컨설팅
심사·선정	행정지원협의체 검토(시·구청 관련부서)	
	공모사업평가(서류심사, 주민발표, 현장심사)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	
	사업선정공고	
사업추진	회계교육	
	맞춤형주민교육(최초사업진행 추진주체대상)	
	공모사업 시행 및 완료(모든 사업은 사업 개시시기와 관계없이 11월말까지는 완료)	
추진/평가	공모사업 중간발표	중간평가 후 잔액지급
평가	공모사업 최종평가	
	공모사업 경연대회	

## 3) 공모사업 심사

### (1) 심사방식

공모사업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 의한 1차평가 후,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공모사업 종류에 따라 1차평가의 심사 방식과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 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12명의 심사위원(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10인, 관련분야 전문가2인)이 3명씩 팀을 이뤄 4개구에 대한 서류심사(주민발표)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의 발표를 듣는다.

□ 시설조성·공간조성, 기획공모

24명의 심사위원(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10인,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주민8인)이 3명씩 팀을 이뤄 4개구(구별 2개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주민발표)를 진행하였다.

□ 수시공모

- 씨앗공모(공동체 프로그램) : 3명의 심사위원(좋은마을 만들기위원회 2인, 관련분야 전문가 1인)
- 기획공모(시설조성·공간조성) : 4명의 심사위원(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2인, 관련분야전문가1인, 주민1인)이 팀을 이루어 4개구에 대한 현장심사(주민발표)를 진행

## (2) 심사 평가기준

현장평가기준 및 평가표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각각의 심사기준 및 배점을 보면 일반공모사업의 서류심사(70점)기준은 동일하며, 공동체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의 실현가능여부, 사업프로그램 구성 적절여부를 사업계획발표(30점)를 통해 평가하며, 시설조성사업은 입지여건, 사업추진 실현가능여부, 서류와 현장의 부합정도 등을 현장심사(30점)를 통해 평가한다.

표 3-2 마을르네상스 일반공모 서류심사(70점) 평가기준

주민참여도(25점)	사업내용 아이디어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정도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정도
	마을가꾸기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25점)	주민자체 부담 정도 등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정도
	사업규모, 내용, 재원투자계획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타당성
효과성(20점)	사업목적의 파급정도와 지역생활호나경 개선에 기여정도
	다수 주민에게의 수혜정도와 사회적 편익증진에 대한 기여정도

-사업계획발표(30점, 공동체 프로그램) 평가기준 : 공모사업의 실현가능여부, 사업프로그램 구성 적절성 여부 등

-현장심사(30점, 시설·공간 조성): 입지여건, 사업추진 실현가능여부, 서류와 현장의 부합정도 등

사업의 예상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지원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씨앗 공모사업은, 심사 평가에 있어서도 채점방식이 아니라 사업 취지와 실현성 등에 대한 적합, 부적합여부만을 판단한다.

표 3-3 씨앗공모 사업 서류심사기준 및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서류심사	씨앗공모와 사업의 연계성 1. 씨앗공모사업 진행 후 사업에 대한 구상 및 계획으로 연계가 되는가? 2. 소모임 구성이 공동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가능성 1. 씨앗공모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가? 2. 선진지 견학의 경우 장소선정이 적합한가? 3. 마을조사 및 사업구상의 내용이 마을만들기 취지와 적합한가?
	적절성 1. 씨앗공모사업으로 적절한가? 2. 선진지 견학의 예산배분이 적절한가? 3. 단순한 여행 및 야유회 성격은 아닌가?
적합여부	1.적합                      2.부적합

기획공모사업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사업계획발표, 그리고 현장심사를 모두 수행하며 현장심사를 시설조성사업(일반공모)에 비해 중시한다. 사업계획발표를 포함하는 서류심사에 50점을, 현장심사에 50점을 배점한다.

-기획공모사업배점 : 서류심사항목{주민참여도(25×5/8점),실현가능성(25×5/8점), 효과성(20×5/8점)}+사업계획발표(10×5/8점)+현장심사(50점)

이외에 행정예산을 수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부서간 중복 지원여부, 특정 이익과 관여하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공통확인사항이 있다.

표 3-4 심사 시 공통확인사항

구분		심사기준
공 통 사 항	타부서와 중복지원사업	공동주택내 시설개선 사업 등 문화예술 환경, 재래시장 등 사업이 동일지역에서 진행중 인 곳 타부서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응모한 경우
	단순한 행사성 사업	단순한 행사성(일회성) 축제 특정 단체의 행사를 응모한 경우 개인적인 모임에서 응모한 경우
	단순 반복적인 봉사활동 및 선정이 안된 공모사 업과 동일(반복)한 사업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독거노인 목욕봉사 동단위 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봉사활동 등 동단위 단체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사업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응모하는 사업 주민참여보다는 제품의 설치공사가 대부분인 사업
	공모사업완료 후 관리가 필요한 사업	사업완료 후 시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사업(유지관리 계 획수립 필요) 공공요금 납부 등 관리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공모사업 평가시 감점	추진주체 회원의 공모사업 중복참여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사업 정산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사업
기획공모사업 평가 중점사항		추진주체들의 참여도와 실현가능성 점검 파급효과와 효과성
씨앗공모사업 평가 중점사항		씨앗공모를 통하여 사업구상 및 계획 연계가능성 소모임의 단순여행, 야유회 등의 성격은 배제

## 4)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현황

### (1) 공모사업 추진현황 일반

2011년 제1회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55개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312건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  
에 있다. 구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건수를 살펴보면 팔달구가  
110건(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구는 52건(16.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동 단위에서도 동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건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역량, 행정동별 주거유형

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행궁동이 49건(15.7%)으로 영통구와 추진건수가 유사할 정도로 활발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반이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표 3-5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동별 추진현황 (2013년말 현재)

구 별	건수	구 별	건수	구 별	건수	구 별	건수
장안구	84	권선구	66	팔달구	110	영통구	52
파장동	10	세류1동	4	행궁동	49	매탄1동	10
율천동	14	세류2동	6	매교동	5	매탄2동	6
정자1동	3	세류3동	8	매산동	6	매탄3동	4
정자2동	6	평 동	2	고등동	3	매탄4동	5
정자3동	13	서둔동	7	화서1동	13	원천동	6
영화동	5	구운동	4	화서2동	7	영통1동	9
송죽동	4	금호동	11	지 동	10	영통2동	6
조원1동	13	권선1동	8	우만1동	2	태장동	5
조원2동	7	권선2동	7	우만2동	4	광교동	1
연무동	9	곡선동	6	인계동	11		
		입북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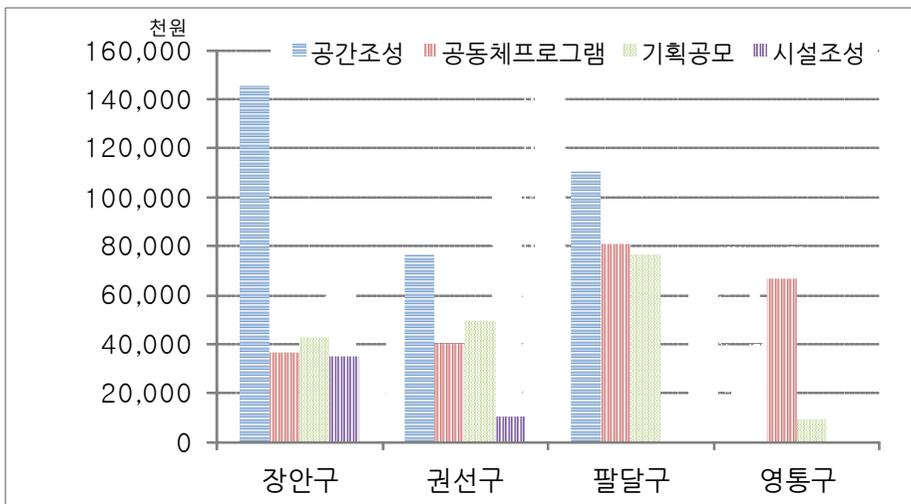
## (2)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공모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동체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총 195건(6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는 공간조성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장안구	84	권선구	66	팔달구	110	영통구	52
공동체	46	공동체	47	공동체	67	공동체	35
시설조성	16	시설조성	7	시설조성	9	시설조성	7
공간조성	19	공간조성	9	공간조성	19	공간조성	7
기획공모	3	기획공모	3	기획공모	14	기획공모	1
씨앗공모	0	씨앗공모	0	씨앗공모	1	씨앗공모	2



〈그림 3-3〉 2013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기공모사업 구별 비교(보조금)

공간조성과 달리 시설조성의 비중이 낮은 것은 대상 시설공간에 대한 마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업이후 유지관리 등 참여 주민주체 자체적인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판단되며, 씨앗공모의 경우는 2013년에 최초 시행된 유형으로서 공모유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공모사업 추진 주민조직의 연속성

2014년 현재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마을단체는 341개에 이르고 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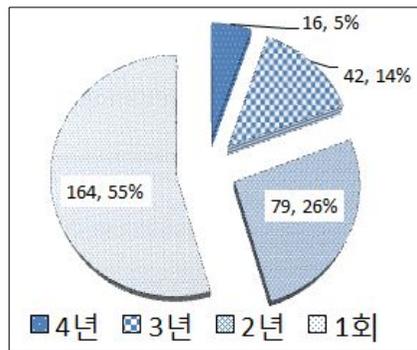
이중 2011년 처음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4개년에 걸쳐 매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16개이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27개<sup>26)</sup>이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2개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26개이다. 반면 1회의 단발성 참여에 그치는 단체는 164개이다<sup>27)</sup>.

마을단체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년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7 마을단체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 년 수

공모사업참여년수	4년	3년	2년	1회단발	합계
마을단체 수	16	42	79	164	301*

\* 공모사업 참여 단체수는 총 341개이나 2014년에 신규로 참여한 40개 단체는 그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제외함.



〈그림 3-4〉 공모사업 참여연수

4개년 연속 참여 단체의 비율은 5%에 그치고 있으나 숫자적으로는 16개나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공동체 활동 현실에 비추어 적은 숫자는

25) 부록 수원시 마을공모사업 활용단체 참조.

26) 3개년동안 계속 참여하는 단체는 24개이며, 2012년도와 2014년도에 참여하는 단체가 3개이다.

27) 2014년부터 신규 참여하는 40개는 지속적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업식에 제외.

아니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기에 2012년도 2013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참여한 주민그룹이 27개와 26개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이 주민들의 단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조직의 공동체 활동이 공모사업을 통해 형성되었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 자생적 조직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조직을 모두 사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단체 중 단발성 참여에 그치는 조직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마을과제를 발굴과 해결을 지원하는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속적 관점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공모사업 자체를 목표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특정 개인이나 활동그룹이 주도하는 개별 사업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역 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마을비전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사업과정을 통해 참여주민들을 조직화하고 활동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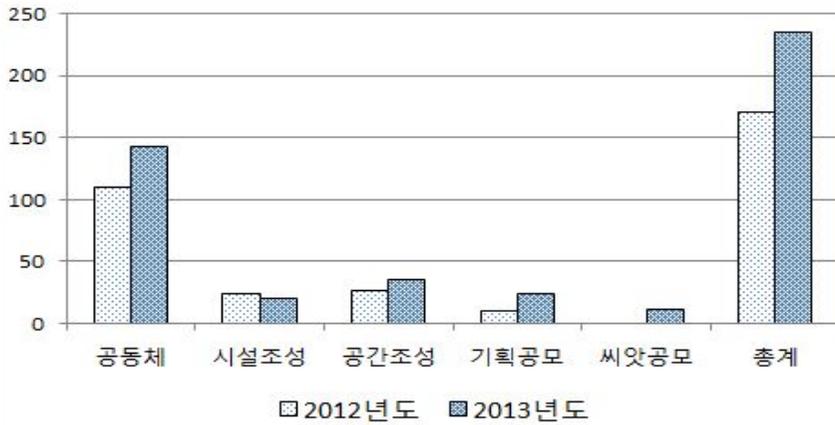
## 5)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특성

취득이 용이한 2012년, 2013년 자료를 가지고 경향성만을 확인하였다.

### (1)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특성

표 3-8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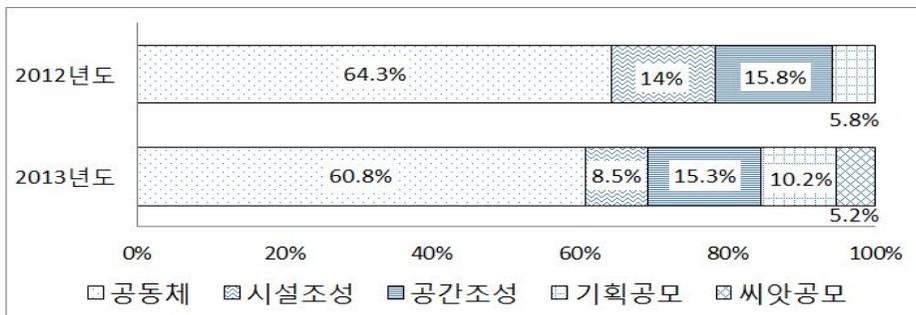
구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총계
2012	110	24	27	10	-	171
2013	143	20	36	24	12	235
증감	33	-4	9	14	12	64



〈그림 3-5〉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신청현황

2012년도에는 공동체 프로그램 110건, 시설조성 24건, 공간조성 27건, 기획공모 10건으로 총 171건이 신청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143건, 시설조성이 20건, 공간조성이 36건, 기획공모가 24건, 그리고 새로이 씨앗공모가 12건 신청되었다.

시설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 조성건수가 감소한 것은 시설조성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줄었다기 보다는 시설의 경우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 공급됨이 따라 시설 요구 수요는 장기적·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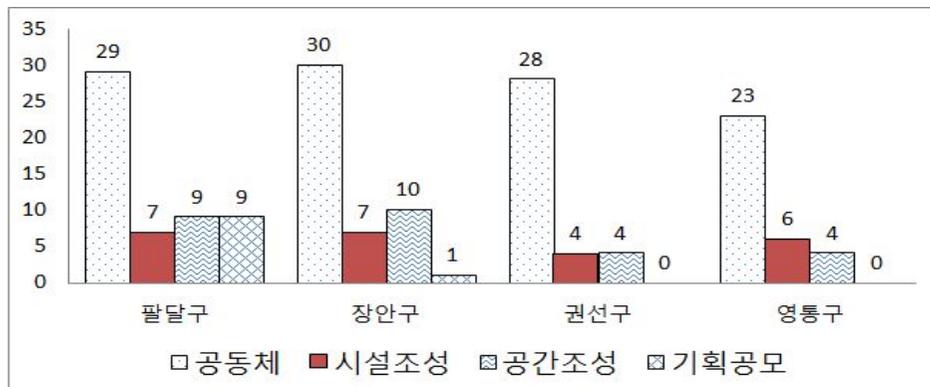
사업종류별 구성비율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며, 물리적 정비로는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공간조성사업이 가장 높다.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조성 및 기획공모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씨앗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어려움이나 전문성 보다는 2013년도에 새로이 시작된 사업으로 인지도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획공모사업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획사업 공모를 시작하였고, 앞서 사업유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대상 사업주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체적 요구도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2) 구별 신청현황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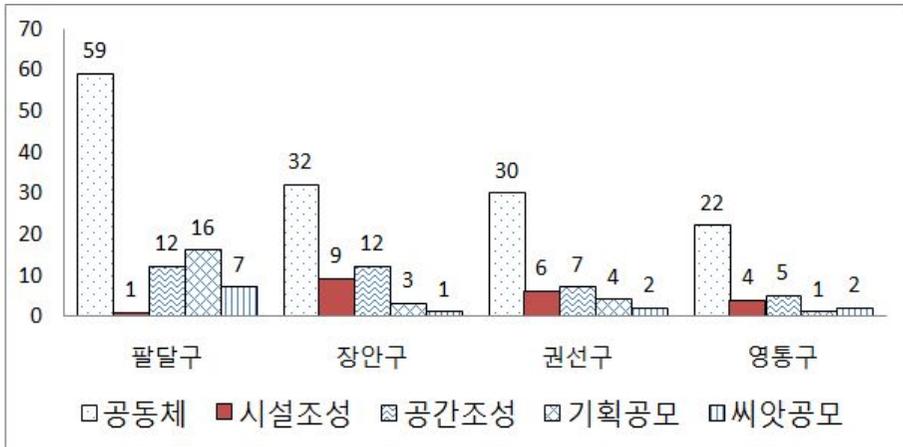
### ① 사업건수

표 3-9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현황

구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합계	
팔달구	2012년도	29	7	9	9	-	54
	2013년도	59	1	12	16	7	95
장안구	2012	30	7	10	1	-	48
	2013	32	9	12	3	1	57
권선구	2012	28	4	4	0	-	36
	2013	30	6	7	4	2	49
영통구	2012	23	6	4	0	-	33
	2013	22	4	5	1	2	34



〈그림 3-7〉 지역별 마을르네상스사업 신청현황(2012년도)



〈그림 3-8〉 지역별 마을르네상스사업 신청현황(2013년도)

구별 공모사업 신청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는 팔달구(54건), 장안구(48건), 권선구(36건), 영통구(33건) 순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팔달구(95건), 장안구(57건), 권선구(49건), 영통구(34건)로 전반적으로 신청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팔달구의 신청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건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영통구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수(2014년 현재)를 보면 팔달구가 21만여명으로 가장 적고, 장안구 30만여명, 권선구 34만여명, 영통구 33만여명임을 볼 때, 상대적으로 영통구의 관심·요구 정도가 가장 낮고, 팔달구의 수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팔달구가 물리적으로는 원도심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보다는 노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며, 인구구성 면에서도 영통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젊은 신규유입인구가 많은 반면, 팔달구는 장기 정주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팔달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보호를 위해 건축규제 등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동시에 정책적으로 전통 문화, 예술 활동이 권장·유도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참여예술가, 시민활동가들에 의한 지역활동이 활발한 것도 해당 지역의 공모사업 신청건수가 높은 이유의 하나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설 조성 사업 신청이 감소한 이유로는,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 이루어진 ‘수원 2013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따른 것으로 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해당 행사와 관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의 정책적 유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시설조성 및 공간조성 사업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적다.

※ 동별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부록참조

## ② 사업비

2012년도 보조금 신청액은 총액 23억 규모로 팔달구가 9억원, 장안구 5.9억원, 영통구 4.1억원, 권선구 약 4억원의 순이었고, 2013년도에는 총액 27.6억원 규모로 팔달구 12.8억, 장안구 6.3억, 권선구 5.6억, 영통구 2.8억의 순이다.

표 3-10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비신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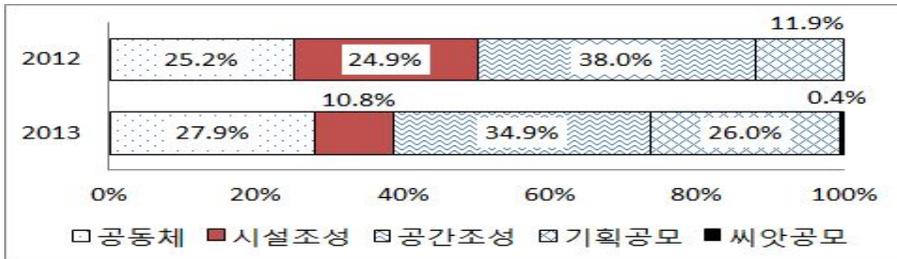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합계
팔달구	2012년도	157,415	113,325	373,200	261,400	-	905,340
	2013년도	328,743	19,400	422,735	506,672	6,714	1,284,264
장안구	2012	169,239	283,934	126,100	14,200	-	593,473
	2013	156,180	125,180	290,730	59,700	900	632,690
권선구	2012	144,705	83,735	172,050	0	-	400,490
	2013	164,223	73,850	180,510	139,050	1,996	559,629
영통구	2012	110,827	92,256	204,000	0	-	407,083
	2013	120,082	79,915	69,792	11,980	2,000	283,769

사업의 종류별로는 공간조성 사업의 사업비가 가장 높으나, 영통구의 경우는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신규개발 지역으로 타 부서인 주택건축과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정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조성 사업비의 신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표 3-1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평균사업 신청금액변화 단위 천원

년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2012	5,293	23,885	32,420
2013	5,379	14,917	26,771



〈그림 3-9〉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종류별 사업비 신청비율

기획공모사업과 씨앗공모사업을 제외한 일반 공모사업의 개별사업별 평균 사업비를 보면 공간조성사업 > 시설조성사업 > 공동체활성화 사업 순이며, 물리적 정비에 관한 단위사업비의 신청금액은 줄어든 반면, 공동체 관련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도의 공모사업별 보조금 신청 금액 비율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 시설조성사업비가 감소하고, 기획공모사업이 대폭 증대하였다. 이는 2012년도 시설조성 사업에 대한 선정비율이 낮았던 점과 팔달구 행궁동의 ‘생태교통 수원 2013’ 이라고 하는 대형 국제행사 시행과 관련하여, 팔달구 행궁동 내 대상지가로의 시설 및 공간정비사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졌고, 대상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기획공모사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팔달구의 시설조성사업 신청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기획공모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음에 기인한다. 씨앗공모사업도 사업건수와 사업비의 절반이상이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다.

### (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현황특성

#### ① 사업종류별 선정건수 현황특성

2012년도에 신청한 171건 가운데 136건(79.5%)이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공동체 프로그램이 91건(82.7%), 시설조성이 17건(70.8%), 공간조성이 20건(74.1%), 기획공모가 8건(80%)으로 시설 및 공간조성의 선정비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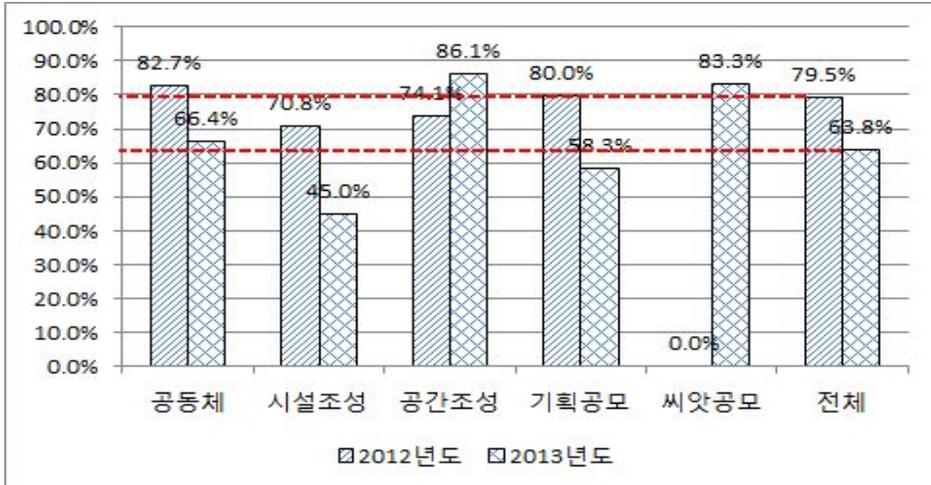
표 3-12 지역별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현황 건수비교

구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합계	
		신청	선정										
팔달구	2012년도	29	26	7	5	9	7	9	7	-	-	54	45
	2013년도	59	38	1	-	12	7	16	8	7	6	95	59
장안구	2012	30	25	7	5	10	8	1	1	-	-	48	39
	2013	32	22	9	7	12	10	3	2	1	-	57	41
권선구	2012	28	24	4	3	4	3	0	-	-	-	36	30
	2013	30	18	6	2	7	4	4	3	2	2	49	29
영통구	2012	23	16	6	4	4	2	0	-	-	-	33	22
	2013	22	17	4	-	5	10	1	1	2	2	34	21
총계	2012	110	91	24	17	27	20	10	8	-	-	171	136
	2013	143	95	20	9	36	31	24	14	12	10	235	150
조성비율	2012	70.3%		40.5%		64.2%		47.8%		0.0%		57.9%	
	2013	48.6%		21.1%		38.7%		32.4%		75.0%		38.1%	

2013년도에는 신청한 235건 가운데 150건(63.8%)이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95건(66.4%), 시설조성이 9건(45.0%),

28)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과 선정, 사업수행까지 사업종류가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청단계에서는 시설 및 공간조성 분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유형이 변경되거나 주민참여 계획과정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있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주체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복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공간조성 분야가 복합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공간조성이 31건(86.1%), 기획공모가 14건(58.3%), 씨앗공모가 10건(83.3%)으로 시설 및 기획공모 선정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0〉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조성비율(조성건수/신청건수)

또한 2013년도의 조성건수 비율을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공간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② 사업종류별 선정액수 현황특성

보조금 선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공모사업의 선정비율은 신청액 대비 2012년도에는 신청액은 23억6백만원인데 비해 13억3천5백만원 상당의 사업이 선정되어 57.9%에 그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청비용이 4천만원 증대한데 비해 선정금액은 3천만원 정도 감소하여 선정비율을 38.1%로 2012년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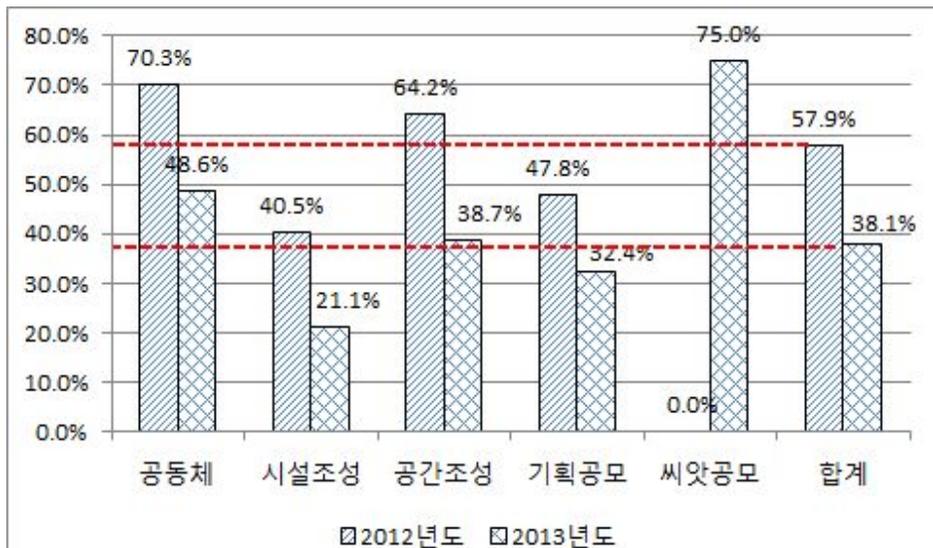
사업별로 비교를 보아도 사업비용 전체규모가 9백만원에 불과한 씨앗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선정비율이 2012년도에 비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예산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선정금액이 감소한 것은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용이 다소 엄격해졌기 때문이다<sup>29)</sup>.

표 3-13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사업비신청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합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팔달구	2012	157	122	113	60	373	200	261	118	-	-	905	502
	2013	329	144	20	0	423	127	507	125	7	6	1,284	402
장안구	2012	169	109	284	60	126	203	14	14	-	-	593	386
	2013	156	83	125	52	291	146	60	47	900	0	633	328
권선구	2012	145	106	84	56	172	79	0	0	-	-	400	241
	2013	164	74	74	11	181	89	139	50	2	1	560	225
영통구	2012	111	71	92	54	204	80	0	0	-	-	407	206
	2013	120	73	80	0	70	11	12	10	2	2	284	96
합계	2012	582	409	573	232	875	562	276	132	-	-	2306	1335
	2013	769	374	298	63	964	373	717	232	12	9	2760	1051
조성비율	2012	70.3%		40.5%		64.2%		47.8%		0.0%		57.9%	
	2013	48.6%		21.1%		38.7%		32.4%		75.0%		38.1%	



〈그림 3-11〉 마을르네상스 사업 선정 비율(2012, 2013)

29) 마을르네상스 센터 사무국장 인터뷰, 2014.11.03

## 6)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활동

### (1)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활동 개요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수원외제에 위탁, 설치된 실행 조직인 마을르네상스 센터는 마을르네상스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보조금 지원,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견학활동 지원, 전문가 파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표 3-14 마을르네상스 센터의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분야	사업명	내용
거버 넌스 구축 및 운영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네트워크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사업
	대학 네트워크	협성대학교(마을계획 수립) 동아방송대(마을르네상스 다큐멘터리 촬영) 한경대(조경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발굴 및 운영	마을르네상스 파트너, 서포터 모집 및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사례중심의 공개 토론회
	마을르네상스 열린광장	
주민 역량 강화	마을르네상스 맞춤형 주민교육	공모사업 선정주체 중 마을학교 미이수자 대상
	마을학교	마을조사, 마을계획 등 교육
	마을르네상스 현장탐방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답사
	국외벤치마킹	일본, 대만 답사
	국내벤치마킹	국내 우수사례 답사
마을 르네 상스 공모 사업	전문가 파견	공모사업 신청서 및 추진과정 자문
	공모사업 회계교육	공모사업 선정주체 대상 보조금 회계교육
	공모사업 모니터링	공모사업 추진주체 수시방문, 현장과제 공유
	중간발표회	중간과정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모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선정
	공모사업 보고서	공모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간
연구 및 홍보	마을르네상스 소식지, 저널발간	공모사업 소개, 수원외의 마을만들기 사례 전파
	마을르네상스 웹진 발간	웹진발간 및 이메일 서비스
	마을만들기 사례조사	국내외 마을만들기 센터 및 사례조사
	연구용역	실천전략, 마을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홈페이지 운영	마을르네상스 프로그램 소개, 정보 제공 등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회계교육 및 맞춤형 주민교육

공모사업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마을만들기 교육을 진행한다.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공모사업 유형에 따라 분과별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민주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가 사업 내용 및 예산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룹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에 파견되는 전문가는 주로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원활한 공모사업 참여 및 운용과정에 대해 자문을 한다.

또한, 중간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유형이 유사한 추진주체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매개하고, 이를 통해 참여 주민주체간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추진주체와 지원조직과의 연계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모니터링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민, 행정, 센터가 함께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주체를 방문하여 회의나 행사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며 주민주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마을르네상스 추진주체간 활동정보 교류

마을르네상스 추진주체들이 사업성과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사업 중간발표회 및 공모사업 개선 간담회를 진행한다. 토론과정에서 주로 사업계획 및 정산등 서류작성의 어려움과 식대 및 다과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 사용규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된다.

## 7)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특성과 과제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의 현장 실행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을르네상스 센터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교류, 정보제공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요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체적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의 대표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의 계기 제공 및 인식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운용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사업의 역할목표가 지역의 공동체적 활동을 활성화함을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 전문가 파견등 지원내용 및 목표, 공모사업 실행 이후의 유지관리 및 후속과정에의 대응, 마을만들기 활동 및 정보거점으로서의 르네상스센터의 역할 등의 면에서 몇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 (1) 심사기준

- 사업성 위주 :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성이나 열정보다는 사업내용 정리, 발표자 개인의 설명능력 평가
- 일반주민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 정도를 우선할 수 있는 심사방법 및 기준 필요

먼저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①주민참여도는 전체 평점의 25%에 불과하며<sup>30)</sup>,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

30) 평가항목 최저점이 정해져 있어 실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편차는 33점이며, 이중 주민참여도가 최대 9점의 편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변별과정에서는 27%의 영향도를 갖지만,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에 무시한다.

등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내용면에서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정도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계획의 구체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참여정도를 서류로 심사하고 있으며, ②주민들의 참여에 있어 그들의 자발성은 물론, 참여의지의 강약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③더욱이 추진주체<sup>31)</sup>와 대면하는 사업계획발표 심사는 사업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성이나 열정 보다는 사업내용을 견실하게 정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방식이다. 특히, 일반주민들에게 있어서 공모사업 신청에 요구되는 문서작업과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 등에 대한 판단 및 작성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의 응모와 준비 자체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 정도를 우선할 수 있는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sup>32)</sup>.

## (2) 주민활동 지원

- 주민들의 현장활동 지원보다는 공모사업 자체의 원활한 수행에 중점
- 주민들의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역량을 갖춘 전문가 확보 검토 필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면에서 보면, 주민특화교육, 전문가 파견 등의 목표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공모서류작성 방법, 회계 및 행정절차 등 대부분 공모사업 자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

31)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발표 심사에 출석한 계획서를 제출한 대표자 등 1인을 말한다.

32) 물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요구된다.

경향이 있다.

르네상스센터의 현장 모니터링도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주민들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들,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주민들의 모습과 해결방안 등을 수집, 정리하는 활동이며, 더욱이 전문가과견제도에 의한 파견 전문가활동이 전문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업방안 모색 등 주민조직 및 그 활동의 강화·확대를 목표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주민들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를 포함하는 주위에 경험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활동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전문가의 확보와 파견을 위한 제도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3) 사업이후 유지관리

- 공모사업 참여 주민조직의 지속적 마을만들기 활동 유지 유도
- 사업과정을 통한 주민조직 강화 및 조직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검토

공모사업 실행이후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보면 공모사업 이후의 관리와 관련하는 지원은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한번이라도 공모사업을 준비한 지역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사업과정을 통한 참여주민들의 조직체계 강화 및 조직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 (4) 공동체적 역량 강화에 따른 단계적 대응

- 향후 주민그룹활동이 마을전체활동으로 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지원 확대 등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

또한, 주민조직의 역량강화 지원은 진행되고 있으나, 공동체적 역량이 강화되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수행해 가고자 하는 주민 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은 지역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지만, 향후 주민들의 씨앗그룹 활동이 마을전체 활동으로 확장된 경우 거점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요구가 증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 이에 대한 비용조달 방안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마을르네상스센터 강화기능

- 상담교류 : 언제나 주민들이 찾아가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교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
- 정보취득 : 방문자가 자유로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 정보들을 취득
- 정보발신 : 활동주체들의 소식지발간 유도·지원, 소식지들의 수집·정리 및 전시제공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마을 만들기 활동조직들 및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및 공유활동, 교육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르네상스 센터가 언제나 찾아가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교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방문자가 자유로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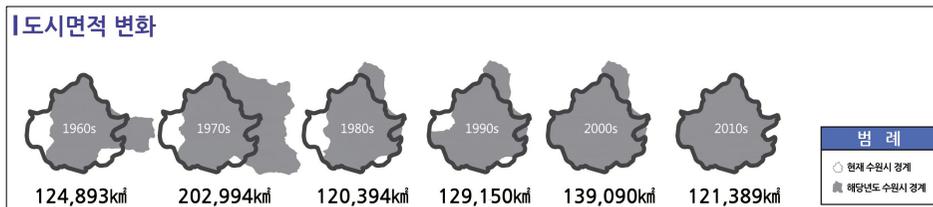
따라서, 각 활동주체들의 소식지발간에 대한 유도·지원과 해당 소식지들의 수집·정리 및 상시배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2. 수원시 마을계획<sup>33)</sup>

### 1) 수원시 마을계획 제도도입의 배경

#### (1) 인구급증

수원시 도시면적은 1960년대 124,893km<sup>2</sup>에서 1970년대 202,994km<sup>2</sup> 최대 면적을 기록한 이 후 2010년 121,389km<sup>2</sup>의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2〉 수원시 도시면적 변화 양상

도시면적의 변화와 함께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약 11년 간 영통, 정자 지구 등 총 11개 지구 7,995,041m<sup>2</sup> 면적이 개발되었다.

이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3년간 3,556,765m<sup>2</sup>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수의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는 1980년 31만명을 기록한 이후 1985년 43만명, 1990년 64만명, 2000년 94만명, 2010년 110만명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변동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도시공간구조는 팔달문→인계동→영통 등으로 중심지가 변화하였으며, 최근 광교신도시의 입주에 따라 광교신도시 지역으로 중심지의 변화가 예상된다.

#### (2)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수원시는 2006년까지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된 이 후 구도심에

33) 수원시정연(201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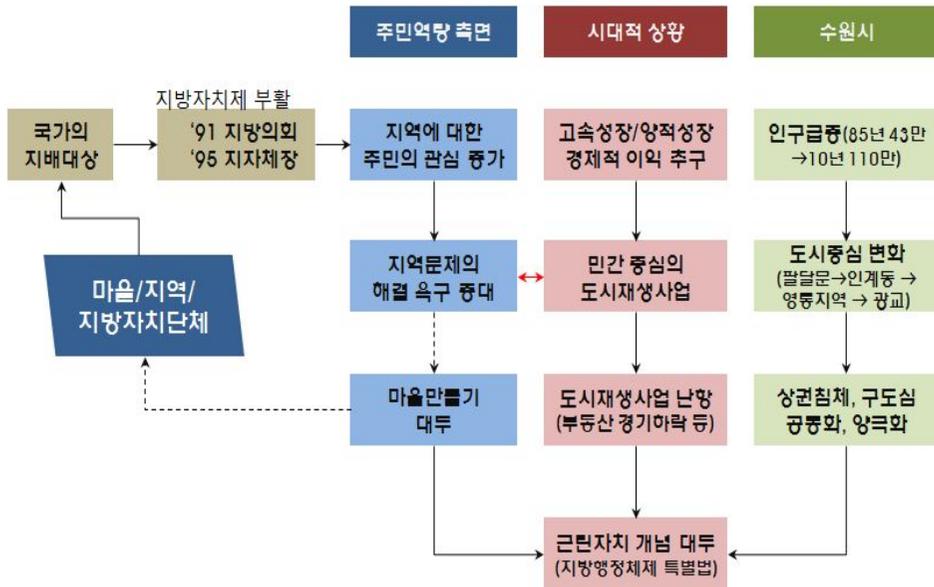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재정비사업구역 등을 통해 20개 주택재개발사업, 4개 주택재건축사업,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27개소의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경기하락과 재정비사업 추진과정의 주민반목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 상태이다.

따라서 구도심에 대한 상권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심 재정비사업의 현실적 대안으로 2010년부터 마을만들기(정책사업명 :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3〉 마을만들기 시대적 상황

## 2) 마을계획의 필요성

수원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의 대안적 성격으로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체계<sup>34)</sup>를 갖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마치쯔꾸리, 국내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는 다르게 사업대상(도시 전체), 사업방식(공모사업)의 차이로 인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아이템 선정, 장기적 마을발전 계획의 단기적 과제로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단기성과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200여 개의 공모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점에서 마을의 중·장기적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템 선정 등 도시계획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순수 주민조직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마을만들기 양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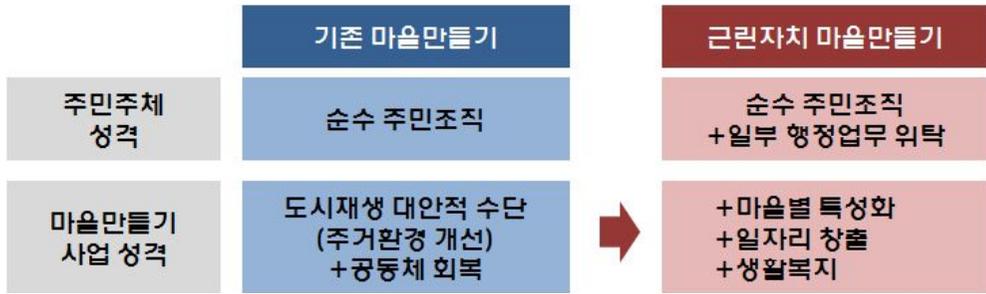
주민주체의 성격이 순수 주민조직에서 일부 행정동의 행정업무를 일부 위탁받을 수 있는 성격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 성격에 있어서도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외에도 마을별 특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복지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계획을 통해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문제의 해결, 주거환경 개선 등의 마을만들기 <그림 3-14> 수원 도시계획과 마을계획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34) 2010.12월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 설치, 수원시 좋은만들기 조례 공포, 2011.3월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5월 마을르네상스 행정지원협의체 구성(12개 부서), 6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개소(수원의제21 위탁운영), 8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실시.



〈그림 3-15〉 마을계획의 필요성

### 3) 마을계획단 운영과정

#### (1) 운영방향

##### ① 회의구성

수원시 마을계획단 운영은 ‘구별회의’와 ‘전체회의’로 이원화하여 진행된다.

표 3-15 수원시 마을계획단 회의구성

구 분	구별회의	전체회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행정동별) 중장기 마을계획 수립</li> <li>■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대식을 통해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마을계획단 이해 및 참여 독려</li> <li>■ 최종발표회를 통한 우수마을 선정 및 축제의 장으로 확대</li> </ul>
운영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번째 모임 6월15일(토)</li> <li>■ 세 번째 모임 6월22일(토)</li> <li>■ 네 번째 모임 6월29일(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모임(발대식) 5월 30일(목)</li> <li>■ 다섯 번째 모임(최종발표회) 7월 13일(토)</li> </ul>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각 개별 구청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청 대회의실</li> </ul>
참여 예상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행정동별) 약 20명(구별 약 200여 명)</li> <li>※ 참여희망인원 모두 참석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행정동별) 10명 내외</li> <li>■ 전체 약 400명 내외</li> </ul>

전체회의는 첫 번째 모임인 5월 30일 발대식과 마지막 모임으로서 7월 13일에 개최되는 최종발표회가 해당하는 것으로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행되는 행사이다.

구별회의는 구별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마을계획단에 참여한 주민들이 구별로 함께 모여 마을의 현황분석과 마을비전, 기본구상 및 사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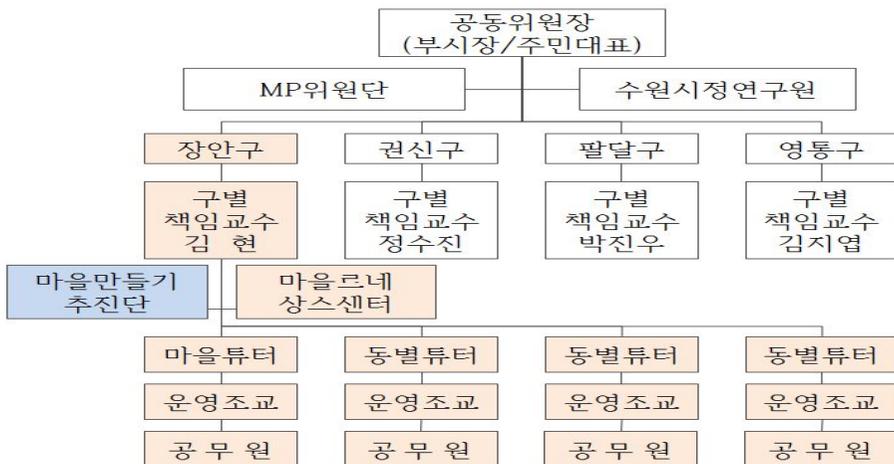
## ② 구별 책임기관제 운영

장안구, 팔달구, 권신구, 영통구 등 구별 책임기관을 선정하여 구별회의의 진행에 대한 운영재량권을 확보하고, 책임기관의 책임교수는 구별회의의 행정동별 마을튜터, 마을조교 등을 적정규모로 판단하여 배치토록 하였다.

운영프로그램 및 일정에 대한 세부운영방식도 책임교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운영체제

### ① 운영조직



〈그림 3-16〉 수원시 마을계획 지원조직

## ② 운영진 역할

운영진 역할은 다음표와 같다.

표 3-16 운영진 역할 분담

운영진	주요 역할
책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등 4개 구별로 책임교수를 선정하여 행정동별로 수립되는 마을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li> </ul>
실무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교수를 보좌하는 역할로서 구별로 진행되는 마을계획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시 강사 섭외 등의 역할을 진행</li> <li>실무책임은 되도록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로 선정</li> </ul>
마을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동별로 마을계획 수립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선생님 역할로서 동별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li> <li>마을튜터는 사전에 수립된 예비계획 수립 자료를 숙지하고 사람들 의견을 잘 듣고, 소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선정</li> </ul>
마을조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튜터를 도와 마을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마을계획 수립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li> </ul>
행정지원 (마을만들기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계획단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li> </ul>
운영지원 (마을르네상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li> </ul>

## ③ 지원조직 역할

지원조직은 크게 수원시정연구원, 마을만들기추진단, 마을르네상스센터로 구분되며, 그 역할은 다음표와 같다.

표 3-17 지원조직별 역할

참여기관	주요 역할
수원시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의견 반영</li> <li>표준교재(주민용)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부</li> <li>마을계획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고민</li> <li>전체회의(발대식 및 최종발표회)에 대한 행사 준비 등</li> </ul>
마을만들기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별 지원인력 배분 검토(마을만들기추진단 공무원)</li> <li>우수마을 선정 시 상급 지급 방안에 대해 고민</li> <li>조교 표창 및 튜터 임명장, 마을계획가 인증서, 수원시 상장, 해외연수 특전 등에 대한 사항 준비</li> <li>마을계획단에서 공유할 자료(수원시정 백서 등)에 배포 등</li> </ul>
마을르네상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등 마련 및 홍보활동 준비</li> <li>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li> <li>주민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li> <li>마을예비계획 요약보고서 등 배포 등</li> </ul>

### (3) 일정 및 내용

마을계획의 전체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다.

▲ 마을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2012.10~2013.2 → 4개구, 4개 팀, 40개 동 진행
▲ 마을계획단 운영: 2013.5~7 → 37개 동 참여, 우수마을 8개 동 선정
▲ 우수마을심화교육: 2013.9~10 : 2012.10~2013.2 → 8개 우수마을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실천사업: 2014년 → 8개 동 12개 추진주체 활동중

〈그림 3-17〉 마을계획 추진과정

마을계획단의 활동과정은 마을계획단 발대식이후 구별계획을 거쳐 작성하고 최종발표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종발표회는 마을계획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었다.

#### ① 마을계획단 발대식

발대식은 수원마을계획(동별 마을계획 총괄) 수립, 마을별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로,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원조직과 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발대식은 2013년 5월 30일(목), 오후 4시부터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발대식은 마을계획단 및 운영진 위촉장 수여, 마을르네상스 헌장 낭독, 마을계획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총 34개 마을(동), 405명이 참석하였으며, 구별로는 장안구 131명, 권선구 76명, 팔달구 108명, 영통구 90명 참석하였다.



〈그림 3-18〉 마을계획단 발대식 전경

## ② 구별 회의 운영과정

구별 회의는 동별 중장기 마을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로, 구별로 개별구청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운영진은 각 구별 책임교수, 실무책임, 마을튜터, 운영조교로 구성되었다.

구별 구성 방법과 인원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8 구별 운영진 구성

구 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책임교수	구별 1인	구별 1인	구별 1인	구별 1인
실무책임	구별 1인	구별 1인	구별 1인	구별 1인
마을튜터	1인 1~2개동	1인 1개동	1인 1개동	1인 1~2개동
운영조교	동별 2~3인	동별 1인	동별 1인	동별 1~2인

### □ 마을 현장조사 - 1단계

마을계획 개념 및 목표 설명, 마을계획의 최종성과물 예시 설명하며, 해당 동의 마을예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비계획에서 다룬 주요 이슈를 언급하였다.

○ 답사루트를 따라 마을을 돌아보며, 마을의 주요 자원, 문제점 등 조사

○ 걸리버지도 만들기

- 답사내용을 대형지도에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표기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제시

□ 마을의 현황 분석 및 이슈 발굴 - 2단계

답사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슈 및 마을 현황을 체계적인 틀로 정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표 및 계획 자료를 제공하여 이슈 도출에 활용하였다. 답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슈(문제점, 숙원사업, 주변지역 상황 등)를 파악한다.

○ 사전에 조교들이 준비한 현황 분석 도면에 추가적으로 마을의 문제, 장단점 표시

- 현장조사시 찍은 사진의 출력본을 도면에 표시
- 마을의 장점, 단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에 대해 작성(SWOT 분석)

□ 비전 및 목표 도출 - 3단계

마을의 미래상과 과제를 만드는 과정으로, 현황분석을 통해 언급되었던 마을의 문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마을계획카드에 개인사항과 마을의 목표이미지, 생활모습 미래상 작성

- 주민들이 작성한 마을계획 카드와 의견 종합 내용 도출
- 마을의 대표적인 생활모습 미래상 설정(3가지)
- 마을의 미래 목표 및 기본방향(전략) 설정

□ 기본구상 및 사업발굴 - 4단계

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마을의 비전 및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향과 실제 마을에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 개인이 생각한 사업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종합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천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 마을계획카드 내용을 튜터진이 정리하여 마을의 목표와 기본방향 (생활모습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 주민들은 정리된 마을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토의, 수정
- 주민들 제안 사업아이디어를 공간, 비용, 주체, 기간별 구분정리 사업아이디어 카드 작성→ 기본구상 도면에 표시→ 우선순위 도출



〈그림 3-19〉 팔달구 구별회의 운영과정

### ③ 장안구 구별 회의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2단계 총 106명, 3단계 총 111명, 4단계 총 109명으로 마을(동)별로 평균 11명~12명이 참석하였다.

표 3-19 장안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구 분	진행내용	일시	마을(동)	
현장 답사	마을답사 (마을분석 및 조사)	06.06(목)	오전	과장동, 정자2동, 송죽동, 조원2동
			오후	울천동, 정자1동, 정자3동, 조원1동, 연무동
2단계	걸리버지도, 마을 장 단점 정리, 마을 비전 및 목표 수립	06.15(토)	오전	과장동, 정자2동, 송죽동, 조원2동
			오후	울천동, 정자1동, 정자3동, 조원1동, 연무동
3단계	마을 미래상, 사업대상지, 아이디어 구상	06.22(토)	오전	과장동, 정자2동, 송죽동, 조원2동
			오후	울천동, 정자1동, 정자3동, 조원1동, 연무동
4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우선순위 선정	06.29(토)	오전	과장동, 정자2동, 송죽동, 조원2동
			오후	울천동, 정자1동, 정자3동, 조원1동, 연무동

#### ④ 권선구 구별 회의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2단계 총130명, 3단계 총115명, 4단계 총126명으로 마을(동)별로 평균 10명~12명이 참석하였다.

표 3-20 권선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구 분	진행내용	일시	마을(동)
2단계	마을현황 분석 및 이슈 발굴	06.14(금)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권선2동, 곡선동
		06.15(토)	서둔동, 권선1동
		06.21(금)	입북동
3단계	마을비전 및 목표 도출	06.18(화)	권선1동
		06.20(목)	세류3동
		06.21(금)	세류1동, 세류2동, 평동, 구운동, 곡선동
		06.22(토)	서둔동, 권선2동
		06.23(일)	금호동
		06.25(화)	입북동
4단계	기본구상 및 사업발굴	06.29(토)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입북동

#### ⑤ 팔달구 구별 회의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2단계 총 88명, 3단계 총 87명, 4단계 총 105명으로 마을(동)별로 평균 9명~11명이 참석하였다.

표 3-21 팔달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구 분	진행내용	일시	마을(동)
2단계	마을현황 분석 및 쟁점 발굴	06.14(금)	매교동, 고등동, 화서1동, 우만1동
		06.15(토)	매산동, 화서2동, 지동, 인계동, 우만2동
3단계	마을비전 및 목표 도출	06.20(목)	매산동, 고등동
		06.21(금)	매교동, 화서1동
		06.22(토)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06.23(일)	화서2동
4단계	기본구상 사업발굴 및	06.29(토)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 ⑥ 영통구 구별 회의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2단계 총 91명, 3단계 총 90명, 4단계 총 93명으로 마을(동)별로 평균 11명이 참석하였다.

표 3-22 영통구 구별 회의 일정 및 진행 내용

구 분	진행내용	일시	마을(동)
마을 답사	마을계획단 소개 및 마을현황 분석	06.08(토)	매탄2동
		06.10(월)	매탄1동, 매탄3동, 영통1동, 영통2동
		06.15(토)	원천동, 광교동, 태장동
2단계	마을현황 분석, 마을 비전 및 목표 도출	06.12(수)	영통2동
		06.14(금)	매탄3동
		06.15(토)	원천동, 광교동, 태장동
		06.17(월)	매탄1동, 매탄2동, 영통1동
3단계	마을비전 및 목표 도출, 마을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06.20(목)	매탄1동, 매탄3동, 영통2동
		06.21(금)	매탄2동, 영통1동
		06.22(토)	원천동, 광교동, 태장동
4단계	동별 발표 및 평가	06.29(토)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원천동, 광교동,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 ⑦ 최종발표회(5단계)

최종발표회는 2013년 7월 13일(토),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별관 2층

중회의실(1부) 및 대강당(2부)에서 개최하였으며, 1부에서는 37개동 마을 계획 전시 및 평가를, 2부에서는 마을계획 발표, 토크콘서트, 우수마을 시상 및 마을계획단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하여 총 37개 마을(동), 446명이 참석하였으며, 구별로는 장안구 123명, 권선구 124명, 팔달구 104명, 영통구 95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3-20〉 마을계획단 최종발표회 전경

최종발표회 결과 우수마을 8개동(구별 2개동), 열정상 4개동(구별 1개동), 화합상 4개동(구별 1개동), 발전상 4개동(구별 1개동), 총 20개동이 수상하였다.

표 3-23 최종발표회 우수마을 수상동

구 분	해당 마을(동)	비 고
우수마을 (8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구 : 과장동, 조원1동</li> <li>■ 권선구 : 서둔동, 금호동</li> <li>■ 팔달구 : 인계동, 화서1동</li> <li>■ 영통구 : 태장동, 매탄3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행계획 수립 후평가하여 순위 결정</li> <li>◦순위 별 인센티브 제공</li> </ul>
열정상 (4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구 연무동</li> <li>■ 팔달구 화서2동</li> <li>■ 권선구 권선2동</li> <li>■ 영통구 매탄2동</li> </ul>	◦인센티브 없음
화합상 (4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구 송죽동</li> <li>■ 팔달구 매교동</li> <li>■ 권선구 입북동</li> <li>■ 영통구 영통2동</li> </ul>	"
발전상 (4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 조원2동</li> <li>■ 팔달구 고등동</li> <li>■ 권선구 세류2동</li> <li>■ 영통구 원천동</li> </ul>	"

## 4) 수원시 마을계획 제도의 과제

### (1) 마을계획단 운영결과

4개구 모두 주민들은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마을 비전과 사업 또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주민들은 마을계획을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비하여 마을계획과정은 지역환경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구별 운영결과는 다음장의 표와 같다.

표 3-24 구별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마을계획결과 분석 종합

구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강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26.5%, 자연환경 17.6%, 공동체 14.7%</li> <li>◦ 교육·보육, 방재·안전 관련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 17.9%, 공동체, 생활환경, 자연환경 16.1%</li> <li>◦ 방재·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19.0%, 교통시설 15.5%, 기반시설 13.8%</li> <li>◦ 교육·보육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생활환경 20.0%, 공동체, 기타 16.7%</li> <li>◦ 방재·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약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35.8%, 기반시설 18.9%, 방재·안전 17.0%</li> <li>◦ 교육·보육, 역사·문화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30.2%, 기반시설 25.6%, 방재·안전 18.6%</li> <li>◦ 모든 의견이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27.0%, 생활환경 22.0%, 방재·안전 16.0%</li> <li>◦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28.3%, 기반시설 20.7%, 방재·안전 19.6%</li> <li>◦ 교육·보육, 교통시설,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기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일자리, 역사·문화 23.1%, 공동체, 기타, 생활환경 15.4%</li> <li>◦ 교육·보육, 교통시설, 기반시설,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일자리, 공동체 22.6%, 기반시설, 역사·문화 16.1%</li> <li>◦ 교육·보육, 방재·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30.0%, 역사·문화 20.0%, 경제일자리 15.0%</li> <li>◦ 공동체, 교육·보육, 방재·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26.9%), 기반시설 19.2%, 공동체, 생활환경 15.4%</li> <li>◦ 교육·보육, 방재·안전, 역사·문화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위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생활환경 25.0%</li> <li>◦ 교육·보육, 교통시설, 역사·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35.0%, 공동체 20.0%, 방재·안전 15.0%</li> <li>◦ 교육·보육, 교통시설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27.6%, 생활환경 20.7%</li> <li>◦ 교육·보육, 역사·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33.3%, 기반시설, 방재·안전, 생활환경 16.7%</li> <li>◦ 교육·보육, 교통시설, 역사·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 없음</li> </ul>
마을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생활환경 28.9%, 공동체 15.7%, 방재·안전 9.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42.7%, 공동체 16.9%, 기타 14.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38.6%, 기타 19.6%, 공동체 1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56.0%, 생활환경 28.0%, 역사·문화 8.0%</li> <li>◦ 경제일자리, 교육·보육, 방재·안전, 자연환경에 대한 비전 없음</li> </ul>
마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중기, 장기</li> <li>◦ 생활환경 개선 36.4%, 공동체 활성화 12.3%, 경제 활성화, 기타 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중기, 장기</li> <li>◦ 생활환경 개선 33.7%, 공동체 활성화 20.3%, 경제 활성화 1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중기, 장기</li> <li>◦ 생활환경 개선 42.9%, 경제 활성화 14.3%, 공동체 활성화 13.0%</li> <li>◦ 자연환경 활용 관련 사업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장기, 중기</li> <li>◦ 생활환경 개선 38.0%, 공동체 활성화 13.9%, 경제 활성화 10.1%</li> <li>◦ 교육·보육 활성화 관련 사업 없음</li> </ul>

## (2) 수원 마을계획의 과제

2013 수원시 마을계획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불일치, 주민생활권과 행정동간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마을의 범위를 두고 겪는 혼란은 계획단과 실천 주체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고,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마을계획단의 단위를 생활권 단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마을계획에는 복지, 도시재생, 마을경제, 문화, 교육, 안전등 삶의 질을 좌우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실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운영진(조력자)의 구성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마을계획단이 활동하는 시기에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받아야 조사와 인터뷰등이 유리하고,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 조직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목 받지 못하였다.

마을의 계획에서 마을사업의 실천이 선순환 하려면, 이웃들과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혹은 마을미디어(마을신문, 소식지)등의 장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마을계획의 확정 혹은 마을전체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동의 마을계획단으로 하여금, 주민 공청회와 주민 원탁토론 (예를 들어 마을단위의 100인 토론)등으로 주최하도록 교육하고 역할을 부여야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대안적 상상이 가능하도록 답사의 기회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을회의 구성 → 교육의 병행 → 마을정보의 제공 → 마을 조사와 계획수립 → 마을계획의 확정 → 도시계획에 반영’으로 순환하는 시기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마을계획을 도시계획의 하부계획으로 보고 있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에

의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정비계획은 정해진 절차가 있고, 용도지역 등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사항의 수정 및 계획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 3.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 1) 마을만들기 협의회 필요성 및 목적

##### (1) 마을만들기 협의회 정의 및 필요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마을르네상스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참여와 소통 속에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각 주민센터에 설치된 주민 스스로의 마을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추진 기구를 말한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기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조직역량이 강화되는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마을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는 물론, 추진주체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 등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 (2) 마을만들기 협의회 목적

마을만들기 협의회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추진하는데 있다.(조례 15조)

-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

## 2)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각 주민센터 단위의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은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15조~제18조(2013.2.5.신설)에 근거한다.

- 구성시기 : 2013년 1월 ~현재
- 구성인원 : 각 마을 별 20명 이내(동장이 위촉)
  - 시 의 원 : 당연직으로 고문 위촉 고문:3명까지 위촉 가능
  - 위촉대상 : 20인 내외
    - 동 단위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 마을만들기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 및 희망자
    -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 임원구성(동장이 위촉)
  - 협의회장 :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임. 주민자치위원장이 역할이 중복되어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
  - 고 문 :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 분 과 장 : 분과별 1인
  - 간 사 : 필요 시 1인
- 분과구성 : 3개 분과 내외
  - 환경수도, 마을경제, 도시가드너, 에너지 절감, 주거환경 개선, 자원 재활용 등 동 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
  - ※ 마을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의 주민 실행 계획 성격을 갖는다.

## 3)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계획목표

### (1) 마을 조사 분석( 민간분야 )

- 추진기간 : 2012. 11월 ~ 2013. 2월(4개월간)

- 추진방법 : 수원발전연구센터 등 4개 기관에 조사 분석 의뢰
- 조사 분석 주요내용
  - 각 주민센터 별 인선된 마을만들기 위원들과 함께 조사 분석
  - 마을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조사
  - 마을의 강점 및 기회요인 분석을 통하여 핵심사업 발굴
  - 각 마을의 고유지명 발굴을 통한 정체성 고양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숙원사업 발굴 등
- 주 관 : 마을르네상스센터

## (2) 마을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 추진기간
  - 마을계획 수립 : 2013. 3월 ~ 9월(7개월간)
  - 마을계획 토론 및 교육 : 2013.4~6월(기간 중 2회, 1회 당 6주)
- 참여인원 : 800명 내외(1회당 400명 내외)
- 운영방법
  - 매주 토요일 14:00~17:30(210분)까지 4교시로 운영
  - ※ 강의(1강), 토론(2강), 발표(1강) 등
  - 마을 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교육

표 3-25 주요 학습 커리큘럼

구 분	주요 행사	주요 학습 내용
1주차	개강식, 부시장 특강	마을 계획/마을만들기, 마을 조사 분석
2주차		마을 비전 및 목표 설정
3주차		마을계획 전략 수립
4주차		마을계획 중 주요계획(공원녹지, 환경 등)
5주차		마을계획 중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6주차	시장님 특강, 수료식	종합발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 발주,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을 유형별 분류 (환경, 복지 등)

- 참여기관 : 수원시, 수원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등

### (3) 마을 조사 분석 및 우수주체 사업비 확보(행정분야)

환경수도, 마을경제, 도시가드너, 자원재활용 등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분과에 대한 역할 및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과(경제정책과), 푸른녹지사업소 등의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13년 추경 또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를 검토한다.

## 4) 마을만들기 협의회 추진 과정

### (1)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 각 주민센터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촉대상 인선 : 2013. 1월
- ※ 2012. 11월부터 마을조사 및 계획 수립
- 각 주민센터 마을만들기 협의회 분과 검토 및 위원 배분
- 협의회장, 분과장 등 임원 인선 후 마을만들기추진단에 종합 통보
- 기존 주민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
- 시 및 마을르네상스 센터 홈페이지, 위원 모집공고 포스터(500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홍보 실시

### □ 마을만들기협의회 주축 마을 사업 추진 사례1 (과장동)

- 과장동은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를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과장동 마을사업을 협의회와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이다. 과장동에는 주택가내 우범지역인 솔밭길과 오랜기간 방치된 공한지, 과장 전통시장 입구 삼익지하보도 공간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접목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 마을만들기협의회 주축 마을 사업 추진 사례2(조원동:마을자원 활용과 안정적인 마을수익 창출)

- 조원동의 경우 맹꽂이 서식지 및 통소바위 전설을 이용해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꾸미는 등 마을의 잠재되어 있던 요소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의 테마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마돈나 돈가스를 운영하며, 조원동의 상징인 대추를 이용해 소스를 개발하는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마을만들기협의회 추진 중간 점검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2년차를 맞아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역량강화 및 소통·화합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 워크숍을 실시(2014. 9. 22)하였다.

- 대 상 : 52명(洞마을만들기협의회장37, 마을만들기추진단7, 각구 안전주민자치과 팀장4, 마을르네상스 센터4)

워크숍 토론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6 워크숍 토론결과

토론분야		토론내용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협의회는 조력자 역할, 의견 조정, 추진대표(제도)</li> <li>○주민·추진주체간 소통하는 역할</li> <li>○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사업에 대해 서로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li> <li>○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살기좋은 마을 만드는 것</li> <li>○마을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기</li> </ul>
	다른 주민조직과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된 곳을 찾아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li> <li>○마을을 생각하는 모임체, 현장에서 함께한다는 것</li> <li>○사업분야가 광범위하나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짐</li> <li>○자발성을 담보로 진행</li> <li>○내가 살고있는 마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체</li> <li>○역사가 짧고 구성원이 다르며 전국이 모두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님</li> <li>○좋은 주민들과 청구하면 예산을 청구할수 있음.</li> </ul>
협의회 리더	해야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술전주범(리더가 선구하되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리드)</li> <li>○마을속 사업 구상 회원과 협의 결정</li> <li>○전문능력 확보, 다양한 분야 식견</li> <li>○지역·단체와 소통</li> <li>○마을만들기 협의회의 비전(목표) 만들기</li> </ul>
	하지 말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적 이익 추구하는 행위</li> </ul>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단적 행동</li> <li>○마을만들기 사업 중도 포기하지 않음</li> <li>○정치적 이용</li> <li>○몇몇 사람하고만 소통</li> </ul>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욕적으로 진행한 사업 공모사업에서 배제</li> <li>○정보공유 부재(타동 마을만들기 사업 벤치마킹)</li> <li>○주민비협조적, 지역 갈등</li> <li>○주민이 직접 마을사업 토론하고 설계하여 직접 참여한 경험</li> <li>○태양광 발전소 수정후 늦은 진행</li> <li>○환경개선 사업 사후 관리비 지원되지 않아 관리 곤란</li> <li>○마을만들기사업 시작전 사업 추진 동의자가 사업 종료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실패사업 됨</li> </ul>
리더 활동 잘하기 전략	3가지 주제 정하기 / 아이디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 자발적 봉사에 소정의 교통비,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등</li> <li>○구성원의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을 조율하기 좋은 해결책 →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꾸준히 키워나가거나 연속적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 주민들의 이해로 끌어냄 → 마을만들기 추진대표 및 추진자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협의회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강구</li> <li>○예산적인 부분, 삭감으로 인한 좌절감 개선방법 → 마을만들기협의회를 통한 사전 검토, 합리적인 예산 사용</li> </ul>
	권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사후 관리 : 사업비 적고 사업비 변경 어려움 → 수익사업 착수, 내실있는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할 수 있게 함.</li> <li>○주민조직갈등 → 꾸준한 설득, 재미있는 운영으로 참여유도, 성취욕 부여, 추진주체 협의회 활동 유도</li> <li>○화단 만들기 사후관리 → 초화류 배제, 사후 관리비 확보</li> </ul>
	팔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폐품 재활용 할 수 있는 교육장</li> <li>○공모사업 선정후 활동가 모여 설명회 개최</li> <li>○마을사업 참여를 위한 환경개선, 마을잔치 개최 → 공모사업 사례 공유, 회계이해 교육,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골목 마을잔치</li> </ul>
	영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간, 단체간, 마을간 갈등 상존 → 주민소통, 마을사업 추진시 사업동의서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 환경 고려 추진</li> <li>○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전문교육 및 현장 답사 등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 기회 수시제공</li> <li>○성공사례, 발전전략 공유 → 재능기부 참여,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벤치마킹과 피드백</li> </ul>
구별 협의회장 리더로서 각오	장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와 봉사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겠음.</li> <li>○청소년들에게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마을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음.</li> </ul>
	권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하는 주민주체들이 즐겁게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게 스스로 행복하도록 주민참여 예산확보 주체 의식 진실된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리더가 되겠음.</li> </ul>
	팔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가 다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리더가 되겠음.</li> </ul>
	영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오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리더가 되겠음.</li> </ul>

□ 마을만들기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지적된 사항

-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2년차를 맞아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장 역량 강화 및 소통·화합이 필요하다.
- 만들기협의회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장동과 다양한 지역자원과 전설을 이용 스토리텔링 공간조성 및 마을 기업 등 마을사업 소재가 풍부한 조원동지역)을 방문 하여 지역내 협의회 역할과 마을사업에 대하여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협의회 기능과 역할 및 리더로서의 자질과 자세,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지역내에서의 마을만들기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3-27 마을만들기 협의회 실제 운영상 과제(마을만들기협의회장 토론내용에서 발췌)

구분	활동	기대 (역할 )	개선할 점
장안구	-찾아가는 봉사정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마을의 낙후지 개선 사업 실시	-조력자 -의견조정, 조율 -주민 행정과 소통창구 -지역공감대형성기반 조성	-조직구성이 아직은 미약함, -주민자치활동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함
권선구	-마을추진주체에게 자료제공 -정보 공유 -마을계획에 대한 지원협조	-주민, 주체간의 소통자 -삶의 질을 위해 편익제공 -주민들과의 단합, 협력	-타 단체의 역할과 중복된다 -주민자치회와 중복가입자가 많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짐.
팔달구	-네트워크 구축 -의견 수렴 -주민의식 개선 역할 -실무진 구성	-중개자 역할 -마을만들기전문가 -사명감 필요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배	-전문가적 자질 필요 -마을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필요 -단체장 회의 같은 성격 다양
영통구	-주민스스로 참여의식 -마을문제 지속적으로 고민 -주민들과의 소통자	-확실한 역할분담자 -의견 조율, 소통 -비전 제시 -열악한 환경 개선 -사업자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다. -단체들 간의 소통 필요 -주민자치위원회사업과 중복

### (3) 향후추진계획

- 시·구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간담회 개최 2014년 10월
  - 시·구 마을만들기협의회 임원진 구성, 시·구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방안 등 의견교환
-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워크숍 추진 2015년 2월

## 5)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한계와 과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행정이 주도하여 행정동을 대상 범위 구성된 협의기구로,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구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논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통합적인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마을만들기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직활동으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sup>35)</sup>, 지역 마을만들기의 구심점으로 인식되기는커녕, 대부분의 협의회 위원 자신들조차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협의회 위원을 동장이 위촉함으로써,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단계에서부터 마을만들기에 대한 배려보다는 동장이 가지는 가치관의 공유에 크게 좌우될 개연성이 높으며,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동장과 배치되는

---

35) 마을만들기 협의회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과장동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존재유무가 해당 마을만들기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과장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과장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며,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추진되었을 과장동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이름으로 추진된 것뿐이라 할 수 있다.

의견 개선이나 사업제안 및 실행은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선 조직구성 후 활동 모색의 체계, 기존의 지역내 마을만들기 활동의 많은 부분이 민원의 직접적인 해결과정으로 즉, 행정과 대치되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마을만들기 활동여부 보다는 동장과의 우호관계가 더 중시될 개연성이 높아,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분열되거나 퇴보될 우려가 있다.

### ②활동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기존의 행정에서 구성한 여타 위원회나 협의회와 달리 제공된 안건에 대해 협의,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만들기 관련 과제 및 활동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정보화하여 공유하는 한편, 그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모든 동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리적 공간구조 및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정치성향 등을 포함하는 지역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지역별로 수립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③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역 전체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특정 목적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적 활동을 중시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구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관계자 이외의 일반주민들은 해당 협의회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지역 전체 공동체 활성화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협의회 중요한 역할이며, 협의회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마을만들기 그룹들에 대해 상위조직으로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해 내는 교류의 장이자 행정과의 소통창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조직들의 정보와 활동내용은 물론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 협의회 일정, 회의내용 및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에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실행의지 등을 기준으로주민이라면 누구나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④ 주민자치조직과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분 명확하지 않다.

마을만들기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해 가는 한편, 주민자치조직도 주민자치회와 같이 지역내에서의 주민 활동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간 힘겨루기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실제, 동차원의 좁은 지역에서 위원들의 업무가 대부분 중복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문제와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협의회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치조직과 구분될 수 있는 협의회만의 활동내용과 구성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⑤ 마을만들기 협의회 제도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향후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대표성 있는 마을만들기 조직으로 정착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제도적 지위, 즉,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의 공감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획득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당 내용을 도시관리 정책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제4장

결론



## 1. 연구 개요 및 결과

본 연구는 수원시가 민선5기 이후 도입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적 실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1차적 연구로 현장에서의 운용과정 고찰을 통해 현실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주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개념을 확인하고 이에 더해 과거 수원권역에서 이루어진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온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문화적 근거를 확보 한다.

또한, 민선5기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 고찰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를 발굴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을만들기’는 ‘행정의 영역이었던 도시공간 관리에 대한 공동체적 주민활동’에 주목한 것으로 ‘지역의 계획 및 사업수행,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루어가는 제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이다.

수원권역에서는 마을만들기라는 제도적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사례가 있어왔으며, 그들 사례의 특징을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 자주적 판단 능력 함양 교육을, 물리적으로는 공동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공동체를 강화해 왔다.’ 특히, 현실적 과제도출과 문제해결에 있어 구성원의 존중과 상호협력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현 수원의 시정방향과 일맥상통하며, 현대적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원시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민들에 의해 먼저 받아들여 실행되어 졌는데,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공동체 중시, 세대간 교류, 체계적 개념교육, 협동적 체험중시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개선에 필요한 사업의 다양한 실행 방안을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마을만들기의 전개에 있어 매우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활동주체들의 역할은 향후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1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발전단계와 각 주체별 역할목표

	주민	지원전문가	행정
① 계기형성 및 씨앗그룹 단계	씨앗그룹활동	인식고양 활동계획	주민교육 계기마련
② 활동심화 및 마을조직화 단계	활동구체화 마을협의회 형성	조직화 마을계획	조직인정 계획인정
③ 마을전체 목표상 수립 및 민관협동의 주체적 실현방안 모색단계	마을협의회	전문지원	파트너지원

### ① 계기형성 및 씨앗그룹 단계

자생적 주민모임이 지역에 대한 과제를 구체적 대안이나 활동목표를 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씨앗과 같은 존재로 지역에서 활동을 도모하는 단계로, 그들의 고민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주민 : 개별 개인 및 조직이 지역의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 지원전문가 :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통한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 및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과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 행정 : 지원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며, 개별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활동심화 및 마을조직화 단계

- 주민 : 지역의 개별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체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통해 활동동료를 확대한다. 폭넓고 체계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조직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조직으로서의 주민조직을 구성한다. 특히, 주요 계획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실행의 주체로 역할한다.
- 지원전문가 : 행정에 의해 제공된 사업실행 활동과정에서 사업자체의 목표성과의 달성 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대응을 중시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의 확대를 유도·지원하면서, 지역에 잠재하는 다양한 역량의 주민들을 발굴,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마을 및 마을주민 특성에 맞춘 사업 발굴 및 사업실행방안의 기획, 그리고 사업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신문 등의 방안을 소개하는 등 주민들이 공동체적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활동과정에서 대두된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조직의 활동비용 및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 등 사업화이전단계 혹은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마을전체 목표상 수립 및 민관협동의 주체적 실현방안 모색단계

- 주민 :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이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넘어서 마을의 전체적 목표상으로서 마을계획을 수립, 보완해 나가면서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사업화와 새로운 사업의 침식 등을 추진한다.

- 지원전문가 : 전문적인 지원영역으로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
- 행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개별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조직과 파트너적 관계설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가 ‘지역의 계획 및 사업 수행 그리고 유지 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루어지는 제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임을 재확인할 때,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제도는 우선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 조례상의 마을르네상스의 정의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가 지향하는 바는 주체로서의 주민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을만들기 주체 면에서 민관협동의 관점이 부족하고, 활동목표에 있어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없이 새롭게 한다고 정의함에 따라 재개발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방식마저 포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운용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에는 지원조직으로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고, 추진조직인 ‘마을만들기 협의회’제도가 있으며, 동단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사업제도로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있으며, 지역현장에서의 주민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로는 ‘마을르네상스센터’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마을계획’, ‘마을만들기 협의회’제도 이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의 현장 실행기관으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교류, 정보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의 계기 제공 및 인식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운용면에서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 전문가 파견등 지원내용 및 목표, 공모사업 실행 이후의 유지관리 및 후속과정의 대응, 마을만들기 활동 및 정보거점으로서의 르네상스센터의 역할 등의 면에서 몇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은 사업성 위주로,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성이나 열정 보다는 사업내용을 견실하게 정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방식이다. 주민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정도를 우선할 수 있는 심사방법 및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현장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모사업 자체의 원활한 수행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업방안 모색 등 주민조직 및 그 활동의 강화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역량을 갖춘 전문가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모사업 실행이후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보면, 한번이라도 공모사업을 준비한 지역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사업과정을 통한 참여주민들의 조직체계 강화 및 조직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공동체적 역량이 강화되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수행해 가고자 하는 주민조직들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는 공모사업 중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동체 및 공간조성에 비해 신청 및 선정 비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향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마을)전체로 확장되는 경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시설설치에 대한 비용조달 방안 및 해당 시설을 주민조직에 위탁하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언제나 주민들이 찾아가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교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방문자가 자유로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활동주체들의 소식지발간에 대한 유도·지원과 해당 소식지들의 수집·정리 및 상시배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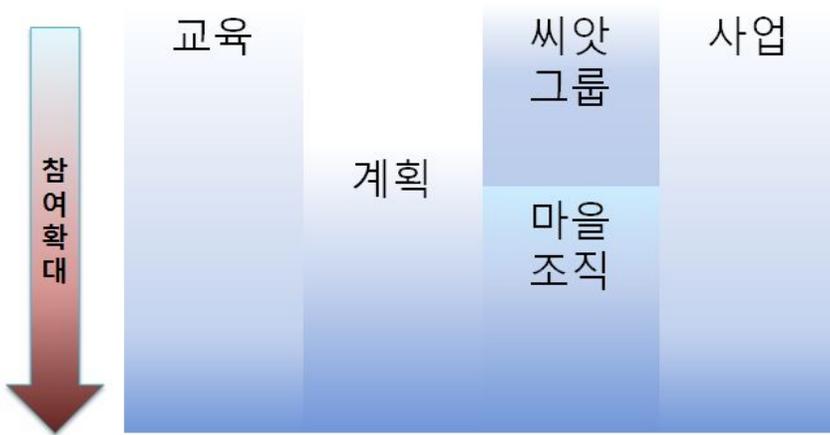
행정에 의해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관리되는 조직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립된 마을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불일치, 주민생활권과 행정동간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마을만들기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계획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 마을계획으로, 마을계획의 의미, 목표, 생활권과 계획권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① 구성원의 적적성
- ② 활동목표 불명확
- ③ 지역전체 정보발신 기능 부재: 새로운 중간보고기관
- ④ 기능과 목적 불명확
- ⑤ 제도적 지위 불명확 : 실행담보력 미비

이에 두 제도는 그 설정 목표와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바탕으로 두 제도를 연계하는 등 제도운용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그림 4-1〉 마을만들기 주요활동 진행체계

마을만들기 제도운용에 있어 모든 주요활동들은 행정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경영조직으로서의 마을조직을 형성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연동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활동은 모두 공동체적 참여확대를 위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주민주체의 지역관리방안 논의에 있어 마을계획은 주민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수정·보완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법정 정비계획은 수립 절차가 정해진 이유가 있고, 용도지역 등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사항의 수정 및 계획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의 제언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는 시 주도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기실 수원시민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며 시 당국은 현실 행정의 한계

속에서 그에 부합되는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비추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행정이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의 기재를 제공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의지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강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한계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과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보다는 행정의 대응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조직 및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만들기의 진전에 따른 대응체계 등 주민활동의 활성화 및 진전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준으로서는 미비하다.

최근 보여진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주민대표의 확대와 같이 주민들의 파트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과제로는 먼저 마을만들기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마을 르네상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조직화 및 활동 강도에 맞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며, 해당 지역공동체 조직과 행정간의 파트너적 관계 설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활동목표로서의 실질적인 마을계획 수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수행 그 자체보다는 공동체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실행 및 사업실행 과정을 통한 공동체 육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씨앗그룹 활동이 마을전체 활동으로 확장된 경우 거점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요구가 증대할 것에 대비한 시설설치 재정확대 및 성숙해진 주민활동주체가 지역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물론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현장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장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의 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부언하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공동체 활동이 선행·지속되고, 이러한 활동에 기반하여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공동체 조직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조직의 활동강도에 근거하여 공간이 조성·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 전역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현황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현재의 체제의 강화방안은 물론, 최초 백지상태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규선의 2인(2012) 청주시 사직2동 마을만들기 단계별 특성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7(4):145-157.
- 신중진, 신호진(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2):109-120.
- 박세훈의 2인(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4(3):207-220.
- 윤혜영(2013)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8):113-121.
- 송혜승의 2인(2008)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3(3):37-48.
- 김주석, 타카미자와 미노루(2007) 지속적·단계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밀집시가지 정비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논문집* 42(3):661-666.
- 목정훈, 박종현(2008)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4):19-38.
- 신중진, 송승현, (2010)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1):295-306.
- 이윤석, 김세용(2008) 함평군과 나가하마시(長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2): 207-214
- 타카미자와 미노루 편저(高見沢 実, 2006) 도시계획의 이론, 학예출판사:교토(学芸出版社:京都)
- 주민주체의 마치쓰끄리 연구네트워크(2009) 주민주체의 도시계획, 학예출판사:교토(学芸出版社:京都)
- 장 장제르 지음/ 김교신 번역(1997) 르 코르뷔지에, (주)시공사:서울
- Howard E(1902) *Garden Cities of Tomorrow*
-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Inc.: New York

Taylor RB편저(1986) *Urban Neighborhoods Research and Policy*,  
Praeger: New York

United Nations(1992) *Agenda 21*,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2013.11) 2013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 최종보고서

마을르네상스센터(2014) 201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마을르네상스센터(2013) 201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수원시(2014.5) 수원 마을르네상스 추진성과 조사

---

## 영문요약(Abstract)



## A Research on the Maeul-Mandeulgi in Suw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a future policy direction of Maeul-Mandeulgi(M-M) by investigating about the policy application process in Suwon since 5th period of a Mayor elected by popular vote. To characterize the Suwon M-M policy, a conceptual define of a MM attempted by analysis about the origin of a word(Mael-Mandeulgi) and old similar cases around Suwon area.

M-M is community management actions including local plan, project conduction, maintenance by an community organization according to a partner with its local administration. It is focused on the community actions about a urban space management which have been assigned on administrators.

Some communities around Suwon have been operating mental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independent judgement and action abilities, and their community having been consolidated through setting community goals, working together and realizing processes.

Especially, on finding out present tasks and its solutions, they having attached much importance to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the follow table shows foci on promoting M-M, revealed by case studies.

table progress of M-M in stages and each main body' s role & aim

step	dwellers	consultants	administrators
① to awake dweller's interest : seed action group	small group actions	cognition promotion, action plan	M-M education, make a chance to M-M
② an action promote: organizing	giving shape to actions, organizing	organazing support, village plan	accept partnership and village plan
③ village plan : governance	village organization	technical support	partner support

This research propose some tasks to adevance present supporting system of Suwon M-M on 4 aspects, that are an application—including a method of selecting— of project, organization, village plan and M-M supproting center's roles.

---

## 부 록

수원시 마을 공모사업 활용단체



## 부록 수원시 마을 공모사업 활용단체

#	공모사업 신청년도	관할동	신청단체명	사업명	공모사업 연속참여			
					2011	12	13	14
1	2011년	장안구 율천동	밤나무동산가꾸기 추진위원회	주민이 만드는 테마가 있는 동산 추가 조성사업	○	○	○	○
2	2011년	장안구 정자3동	정자3동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정자마을 달빛축제와 천천로변 꽃길조성	○	○	○	○
3	2011년	장안구 영화동	맹벌과 영화마을사람들	끝내음 가득한 영화효마을 조성사업	○	○	○	○
4	2011년	장안구 조원1동	사랑걸린대추골추진팀	사랑걸린 대추골 가꾸기	○	○	○	○
5	2011년	장안구 조원1동	대추동이문화마을만들기 추진단	대추동이 나눔터	○	○	○	○
6	2011년	권선구 세류1동	수인선세류공원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책과 함께 하는 수인선 기차여행	○	○	○	○
7	2011년	권선구 세류3동	세류3동 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벽면조형, 안전속도유지시각화 조형, 세류3동 소식지 만들기	○	○	○	○
8	2011년	권선구 권선1동	권선예절원	차와 함께 예절이 숨쉬는 마을만들기	○	○	○	○
9	2011년	팔달구 행궁동	통장협의회 행궁지킴이	행궁동 문화제지킴이 마을	○	○	○	○
10	2011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	이웃과정을나누는동말만들기 기쁨어르신휴먼케어	○	○	○	○
11	2011년	팔달구 우만2동	우만2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다운 장미마을 만들기와 장미축제	○	○	○	○
12	2011년	영통구 매탄2동	매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옥상지붕녹화텃밭가꾸기 기열린문화공간작은음악회	○	○	○	○
13	2011년	영통구 매탄4동	매탄4동 주민자치위원회	건물 옥상녹화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텃밭가꾸기	○	○	○	○
14	2011년	영통구 영통1동	벽산풍림아파트 음악동호회	황골마을음악제	○	○	○	○
15	2011년	영통구 영통2동	영통2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와 사랑이 만나는 산책로	○	○	○	○
16	2011년	영통구 태장동	방죽머리 르네상스 추진협의회	방죽머리둘레길조성사업 어르신센터(정자)조성	○	○	○	○
17	2011년	권선구 서둔동	서둔동.탐동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탐동 정체성 찾기 작은 음악회	○	○	○	
18	2011년	권선구 권선1동	수원가구연합회	환경을 생각하는 가구리품사업	○	○	○	
19	2011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2동 맛고을상가번영회	나부터 다함께 하하호호!! 비타민 광장만들기	○	○	○	
20	2011년	권선구 권선2동	사랑의 텃밭가꾸기 마을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의텃밭가꾸기 (녹색공원 푸르게 만들기)	○	○	○	
21	2011년	권선구 곡선동	고령골마을만들기협의회	고령골 옥상텃밭 조성	○	○	○	
22	2011년	팔달구 행궁동	수원시민극단	뮤지컬 "마을만들기" 순회공연	○	○	○	

23	2011년	팔달구 행궁동	무예24기연무회	수원화성 무예24기 전승마을만들기	○	○	○	
24	2011년	팔달구 매교동	매교동주민자치위원회	행복한 마을에 즐거움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	○	○	
25	2011년	팔달구 화서1동	수원다문화도서관	학교밖 학습생태계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조성	○	○	○	
26	2011년	장안구 율천동	율천동 밤밭축제 추진위원회	밤밭축제	○	○	○	
27	2011년	장안구 정자3동	서호천의 친구들	서호천숲대공원만들기 서호천마을카페	○	○	○	
28	2011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산 마을신문	칠보산마을신문, 마을가게 지키기	○	○	○	
29	2011년	팔달구 지동	못골문화사랑	아름다운 노을빛 옥상예술제	○	○	○	
30	2011년	팔달구 매산동	매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담장벽화그리기 사업	○	○		
31	2011년	장안구 정자3동	자전거시민학교	생태교통 자전거 마을만들기	○	○		
32	2011년	장안구 조원2동	주민자치위원회등 6개단체	오감만족돌레길 쉽터 확대 추진	○	○		
33	2011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예술마을	○	○		
34	2011년	팔달구 행궁동	팔부자상가변영회	왕이 만든 마을 팔부자 문구(테마)거리 꾸미기	○	○		
35	2011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길발전위원회	마을르네상스 1번지 행궁동 마을 안내자 양성 및 안내소 운영	○	○		
36	2011년	팔달구 행궁동	아름다운 행궁길	문화예술제(행궁길한마당축 제)행궁동공방거리살의이야기	○	○		
37	2011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말 꽃마을 르네상스 사업	○	○		
38	2011년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상조회	나혜석거리 문화자원 조사 및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프리마켓	○	○		
39	2011년	영통구 영통1동	신명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하수이용시설설치및쌈지 공원마을문화예술축제	○	○		
40	2011년	팔달구 화서2동	꽃피버들마을 나누며가꾸기회	꽃피버들마을 꽃길조성과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진행하기	○	○		
41	2011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 푸드테라피	칠보푸드테라피 요리명상강좌	○		○	
42	2011년	영통구 매탄1동	새마을지도자 매탄1동 협의회	동수원로 인도변 꽃길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	○		○	
43	2011년	장안구 과장동	과장시장 상인회	사람이 모이는 과장시장만들기	○			
44	2011년	장안구 정자2동	수원YMCA	정자동 DIY 아나바다 매장	○			
45	2011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산청소년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책읽고이야기하는 마을만들기	○			
46	2011년	권선구 권선1동	벽화그리기&담장꾸미기	권선1동 장교독마을가꾸기회	○			

47	2011년	권선구 곡선동	온수골 마을만들기 협의회	온수골 문화의 거리조성	○			
48	2011년	영통구 매탄1동	구매탄시장상인회	구매탄시장 한가위 한마당	○			
49	2011년	영통구 매탄1동	새마을문고 외	생생나눔장터 놀러가자	○			
50	2011년	영통구 매탄4동	산드래미 상가변영회	산드래미 차없는 거리 축제	○			
51	2011년	영통구 매탄4동	한국2차 입주자대표회의	정문담장 허물기	○			
52	2011년	영통구 영통1동	계룡리슈빌 스카이 관리단	아파트옥상녹화 및 텃밭가꾸기	○			
53	2011년	팔달구 행궁동	수원회성마을만들기 추진위	북(book)소리나는 연체협 박물관	○			
54	2011년	팔달구 행궁동	북수동화홍문 사람들	무지개 꽃길따라 벽화골목으로	○			
55	2011년	팔달구 행궁동	마을사람	골목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			
56	2011년	팔달구 매교동	수원팔달문 로데오상인회	테마거리 조성	○			
57	2011년	팔달구 매산동	매산동 테마거리 상인회	깨친맛(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게) 펼치기사업	○			
58	2011년	팔달구 지동	지동 새마을3단체	수원회성과 지동 골목길과의 반가운 동행	○			
59	2012년	장안구 파장동	배나무골마을만들기 협의회	해우재와 함께 하는 배나무골 조성사업		○	○	○
60	2012년	장안구 파장동	파장천맛고을상인회	파장천 맛고을 만들기 사업		○	○	○
61	2012년	장안구 정자1동	정자1동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사유지를 활용한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조성		○	○	○
62	2012년	장안구 송죽동	희망송죽 건강네트워크	건강한 숲대마을 만들기 "건강한 주민, 건강한 환경, 건강한 지역사회"		○	○	○
63	2012년	장안구 연무동	연무시장상인회 內 마을만들기위원회(반딧 불이 연무시장)	인정이 가득한 텃밭가꾸기		○	○	○
64	2012년	장안구 연무동	연무동 복지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제2회 연무동 통소바위 축제		○	○	○
65	2012년	권선구 세류2동	치매미술치료협회	어르신과 함께 하는 민들레향은 피고지고		○	○	○
66	2012년	권선구 세류2동	3세대문화사랑회	함께 하는 "버드네길 축제"		○	○	○
67	2012년	권선구 세류2동	세류2동좋은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테마가 있는 우리마을 디자인		○	○	○
68	2012년	권선구 세류3동	권선구 청마상가연합회	맑고 쾌적한 세류동 녹색 꽃마을 르네상스사업(1가정 1상가 화분가꾸기)		○	○	○
69	2012년	권선구 구운동	구운동좋은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군들 청룡 문화축제		○	○	○
70	2012년	권선구 곡선동	곡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곡반정동 사랑의 텃밭가꾸기		○	○	○

71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이야기꽃피는 신풍마을	사계절 추억 만들기		○	○	○
72	2012년	팔달구 고등동	고등동 주민자치위원회	국화향기 그윽한 쌍우물 축제		○	○	○
73	2012년	팔달구 화서2동	화서2동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꽃피가족공원 가꾸기 사업		○	○	○
74	2012년	장안구 정자2동	정자2동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저탄소 소통의 거리 운영		○	○	○
75	2012년	장안구 조원1동	대추골 사랑나눔팀	사랑의텃밭가꾸기		○	○	○
76	2012년	장안구 연무동	반딧불이 실버 빨래방	사랑실은 흠뻑어르신 빨래방운영		○	○	○
77	2012년	팔달구 행궁동	금빛합창단	행궁동 금빛합창단		○	○	○
78	2012년	팔달구 행궁동	마을농부	교실밖을나온Eco-Mobility 용기종기 인문학 배움터		○	○	○
79	2012년	팔달구 지동	지동창룡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지동마을 되살림 발전소		○	○	○
80	2012년	팔달구 인계동	꿈을 심는 여우천사	마을 북카페 운영		○	○	○
81	2012년	영통구 매탄1동	매탄1동 마을르네상스 협의회	마을 주민이 만드는 매여울콘서트		○	○	○
82	2012년	영통구 매탄3동	매여울 단체 연합회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작은음악회		○	○	○
83	2012년	장안구 율천동	밤밭문화의거리	주민이 함께 만드는 푸르고 안전한 '밤밭 성대길'		○	○	
84	2012년	장안구 정자3동	정자동마을신문위원회	정자동 마을신문 만들기		○	○	
85	2012년	장안구 정자3동	장안청소년 오케스트라위원회	청소년문화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함께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		○	○	
86	2012년	장안구 송죽동	송죽9동 행복한 달팽이들	공원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		○	○	
87	2012년	권선구 세류3동	세류어린이공원지킴이	주민화합 축제와 바자회 개최 및 담장 그림그리기		○	○	
88	2012년	팔달구 행궁동	남문 로데오 시장 상인회	아름다운 테마거리 마을가꾸기		○	○	
89	2012년	팔달구 매교동	좋은사람들 벽화	마을대표조형예술품 만들기 및 테마 벽화거리 조성		○	○	
90	2012년	팔달구 매산동	매산로테마거리 상가상인회	깨친맛(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게) 펼치기 사업		○	○	
91	2012년	영통구 매탄1동	매탄1동 새마을부녀회	매여울 주민이 만드는 매여울표 전통장만들기		○	○	
92	2012년	영통구 원천동	원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푸르름이 더해지는 우리마을(옹벽 녹화사업)		○	○	
93	2012년	영통구 영통2동	배나무골사람들	영통 배나무골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멀고도 먼 이야기 11통의 기적"		○	○	
94	2012년	장안구 정자1동	정자1동 꽃마을 마을사업단	맑고쾌적한정자1동녹색꽃마 을르네상스사업		○	○	

95	2012년	장안구 정자3동	나라사랑정자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영화천변 테마가 있는 태극기 거리 만들기		○	○	
96	2012년	장안구 조원2동	한일사랑봉사회	외자녀 친구 맺어주기		○	○	
97	2012년	장안구 조원2동	좋은마을가꾸기추진단	이웃이 하나되는 달빛 음악회		○	○	
98	2012년	권선구 곡선동	곡선동명품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고령골 작은음악회 개최		○	○	
99	2012년	권선구 금호동	호매실 사랑회	호매실 옛 모습 찾기		○	○	
100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에코퍼포먼스그룹	에코퍼포먼스그룹 창단 공연		○	○	
101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청소년자원봉사센터	Eco Mobility Festival 1기 청소년기자단		○	○	
102	2012년	팔달구 화서2동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행복한 고향골 만들기		○	○	
103	2012년	팔달구 인계동	인도래마을 신문추진위원회	인계동 마을신문 인도래 만들기		○	○	
104	2012년	영통구 매탄3동	매여울 생활체육위원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아침 생활체육교실 운영		○	○	
105	2012년	영통구 영통1동	행복이 샘솟는 청명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활성화마을만들기		○	○	
106	2012년	팔달구 화서2동	징검다리 기타 앙상블	꽃피 동네방네 마을음악회 및 기타 강습		○		○
107	2012년	장안구 연무동	수원효사랑봉사회	효사랑 넘치는 연무동 만들기		○		○
108	2012년	영통구 매탄2동	매탄2동 통장협의회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 산남 행복도우미		○		○
109	2012년	장안구 과장동	노송골효봉사회	노송골 효사랑 실천 사업		○		
110	2012년	장안구 과장동	과장시장	사람이 모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시장만들기(과장시 장 내 개별상점 이니셜 등록상표 부착사업 등)		○		
111	2012년	장안구 과장동	열린벚꽃마을삼익아파트 를사랑하는모임	열린꽃동네 삼익아파트 개방 벚꽃축제		○		
112	2012년	장안구 영화동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	제2회 새솔막 거리 축제		○		
113	2012년	장안구 연무동	연무동 재향군인회	광고하천 꽃길만들기		○		
114	2012년	장안구 연무동	광고산유기농 작목회	광고산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태친수 공간조성		○		
115	2012년	권선구 평동	고색동좋은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솔대마을 꿈을 그리다! 유희공간을 이용한 문화, 편의시설공간만들기		○		
116	2012년	권선구 권선1동	마음친구코칭센터	권선지교 프로젝트		○		
117	2012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동전래놀이 주민준비위원회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		
118	2012년	권선구 입북동	당수청정시루 콩나물 사업단	함께 하는 청정시루 콩나물 만들기 사업		○		

119	2012년	권선구 입북동	입북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사랑 장수지팡이(창려장) 만들기	○		
120	2012년	팔달구 행궁동	남향향우발전위원회	건기 좋고 살기좋은 남향동 만들기	○		
121	2012년	팔달구 지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제일교회	교회종탑을 활용·한수원화성 동쪽전망대 및 갤러리 조성	○		
122	2012년	팔달구 지동	새마을지도자 지동협의회	지동 골목길 및 전통시장 마을이야기책 제작	○		
123	2012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1동 새마을협의회	우만1동 마을자원조사	○		
124	2012년	영통구 매탄3동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 새여울 부녀회	새여울 마을만들기	○		
125	2012년	영통구 매탄4동	매탄4동 통장협의회	산드래미 홈페이지 운영	○		
126	2012년	영통구 원천동	원천동 통장협의회	사색터널에서 솟대에 희망을 날자	○		
127	2012년	영통구 영통1동	황골주공2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조성	○		
128	2012년	장안구 과장동	과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대학 운영	○		
129	2012년	장안구 울천동	울천동 마을만들기분과위원회	밤밭 고가차도 기둥 글판 설치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	○		
130	2012년	장안구 정자2동	꽃피노을마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지, 지점토공예체험교실및 녹색장터, 영화한마당	○		
131	2012년	장안구 정자2동	장안청소년 문화의 집	‘골목놀이문화의재탄생’(안 전하게걸을수있는아름답고 정다운골목만들기)	○		
132	2012년	장안구 정자2동	대유평 사색의 거리 조성팀	마음을 다스리는 사색의 거리조성	○		
133	2012년	장안구 정자3동	비단마을베스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마을르네상스사업 (길을열고마음을나눈다)	○		
134	2012년	장안구 영화동	손님맞이 나팔꽃 축제 추진팀	영화마을 나팔꽃 축제	○		
135	2012년	장안구 송죽동	술대생태마을가꾸기팀	동주민센터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	○		
136	2012년	장안구 조원1동	대추골 희망천사팀	드림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운영 및 화분 가꾸기를 통한 녹색환경체험	○		
137	2012년	장안구 조원1동	대추골 행복나눔팀	친환경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	○		
138	2012년	장안구 연무동	새마을지도자 연무동협의회	1점포1화분 아름다운거리만들기	○		
139	2012년	권선구 세류1동	다문화가족사랑협의회	여성이민자 문화공간조성사업	○		
140	2012년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해병대 전우회	맑고 쾌적한 세류동 녹색 꽃마을 르네상스 사업	○		
141	2012년	권선구 세류3동	세류3동GP문화환경보호 실천연합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봉사 아나바다 장터 매장 운영	○		
142	2012년	권선구 평동	고색동동네잡지사랑나무 매거진발간위원회	고색동동네잡지사랑나무 매거진발행	○		
143	2012년	권선구 평동	평동 자유총연맹	주민화합을 위한 고색동 (큰말) 추억의 쿵쿨대회	○		

144	2012년	권선구 서둔동	탐동 우방 주민텃밭 추진위원회	우방텃밭주민학교		○		
145	2012년	권선구 서둔동	희성연인아파트입주대표회의	마을만들기조사및교육		○		
146	2012년	권선구 금호동	금호동 칠보산 사랑나눔회	어려운 이웃과 사랑 나누기		○		
147	2012년	권선구 금호동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생태 교통 자전거 학교 만들기		○		
148	2012년	권선구 금호동	금곡동 전통문화보존회	금곡동 전통문화보존 국가지정부행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국축제		○		
149	2012년	팔달구 행궁동	행안지모	어르신과 아이들이 께하는 즐거운 남창동 마을 만들기		○		
150	2012년	팔달구 행궁동	매화꽃피는마을	매향동 골목길의 꿈 만들기		○		
151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장안문 안 사람들	나혜석생가터느티나무골목길과 정겨운 골목길 꾸미기		○		
152	2012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운영위원회	복합문화공간을 통한 예술거리 조성		○		
153	2012년	팔달구 행궁동	꿈꾸는 골목들	아름다운 골목길만들기 '골목아카데미'		○		
154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에너지 자립 마을	에너지를잡아라! 안전한마을, 쾌적한 주택, 건강한 주민만들기		○		
155	2012년	팔달구 행궁동	재능기부마을	화령전 뒤 선경도서관 앞길 꾸미기		○		
156	2012년	팔달구 행궁동	화서문로 상가변영회	"걸을수록 기분 좋은 거리, 화서문로"만들기		○		
157	2012년	팔달구 매산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옥상 텃밭 가꾸기		○		
158	2012년	팔달구 매산동	多모여	이주민과지역주민이함께하는-수원역에서 발樂하다		○		
159	2012년	팔달구 매산동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우리동네 햇빛농장 만들기		○		
160	2012년	팔달구 화서1동	동말골 마을르네상스위원회	자원순환테마마을조성 (탄소배출 절감 폐자원활용 시스템구축사업)		○		
161	2012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종합복지관	일곱 빛깔 온통(濶通) 프로젝트!		○		
162	2012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사랑봉사단 (우만1동새마을부녀회)	우만爰찬, 사랑의 반찬 나눔		○		
163	2012년	영통구 매탄1동	매사회	사진 그리고 사람' - 매여올어울림		○		
164	2012년	영통구 매탄1동	매탄1동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도심속의 자연생태 학습장 (토끼사육장) 공원 만들기		○		
165	2012년	영통구 매탄3동	매여울 새마을단체연합회	재활용을 이용한소품만들기 및 녹색가게 운영		○		
166	2012년	영통구 매탄3동	매여울 주민화합회	주민화합 어울림가을콘서트 및 청소년 어울림 마당		○		
167	2012년	영통구 원천동	이주 좋은 거리	이주대삼거리 금연거리 만들기		○		

168	2012년	영통구 영통2동	살구골동아서광성지진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살구마을 문화체험 강좌	○		
169	2013년	장안구 울천동	마을만들기 위원회	밤밭청개구리공원 배후지 농사체험학습장 및 사랑 썰매장 운영		○	○
170	2013년	장안구 울천동	시민극단 울	시민극단 울		○	○
171	2013년	장안구 과장동	바른마을주민창작아트 추진협의회	삼익지하보도벽면공간 주민창작아트사업		○	○
172	2013년	장안구 조원1동	조원에 정주마	광고산을 조원동으로 끌어당기기		○	○
173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정겨운골목길	이웃을 만나는 동네 색 칠하기 '칠 품앗이 칠 이웃'		○	○
174	2013년	팔달구 지동	창룡마을 창작촌	<노을빛 전망대 및갤러리> 시설보강 및 운영활성화		○	○
175	2013년	영통구 매탄3동	매여울사람들	매탄3동 마을신문 만들기		○	○
176	2013년	권선구 서둔동	서둔 가드닝 밸리	서둔 도시정원 및 식물원 운영		○	○
177	2013년	권선구 금호동	책나무	소(통) 나(눔) 기(쁨)와 함께하는 책 읽는 칠보동산		○	○
178	2013년	장안구 송죽동	송도빌라 행복한 사람들	송도빌라 환경개선 사업		○	○
179	2013년	권선구 서둔동	탐동 상가 번영회	주민과 호흡하는 탐동 상가회운영		○	○
180	2013년	팔달구 우만1동	에넵가족도서관	우만이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교실		○	○
181	2013년	장안구 울천동	우리고장수원지킴이 책사랑운영회	제2기 북아트로 만나는 조선왕조 이야기		○	○
182	2013년	장안구 울천동	대유둔 한마음 위원회	대유둔 한마음 대동제		○	○
183	2013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산마을 꿈꾸는 자전거	두 바퀴로 만나는 칠보산 마을 사람들		○	○
184	2013년	권선구 권선1동	사랑나눔 희망 봉사단	사랑과 옛 이야기가 만나는 따뜻한 밥상		○	○
185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풀피들	팔달산에서 생태교육을 통한 에코 힐링		○	○
186	2013년	팔달구 매산동	매산동 새마을 부녀회	다문화 한 가족 행복 만들기		○	○
187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고화매 서로 돌봄 위원회	어린이 텃밭 마을 만들기		○	○
188	2013년	팔달구 지동	해님과 달님 작은 도서관	어린이 책 작가와 함께 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	○
189	2013년	팔달구 인계동	인계동 다울 공동체	다울 커뮤니티 마을문화 디자인하다		○	○
190	2013년	팔달구 인계동	인계동 체육진흥회	저탄소 환경운동을 위한 자전거 교실		○	○
191	2013년	영통구 매탄2동	매묵회	체험하며 즐기는 서예교실		○	○
192	2013년	영통구 매탄2동	매여울 봉사단	매여울 사랑방 쉼터		○	○

193	2013년	영통구 원천동	영통구청소년오케스트라 후원회	영통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육성			○	○
194	2013년	영통구 영통1동	황골마을 북카페 운영위원회	웃음이 피어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	○
195	2013년	장안구 과장동	길쌈어린이'녹색노송마을' 지킴이	밝은 길쌈, 아름다운 노송마을 만들기			○	
196	2013년	장안구 울천동	래미안새마을문고	책과 함께하는 래미안아파트 만들기			○	
197	2013년	장안구 울천동	하늘사슴들의 모임	성균관대학교와 울천동 길을 걸어보고 싶은 거리			○	
198	2013년	장안구 울천동	밤꽃마을 사랑방	밤꽃마을 르네상스 사업			○	
199	2013년	장안구 울천동	밤밭골 사람	역사는흐른다(우리의잃어버 린시간을찾아서)			○	
200	2013년	장안구 정자1동	정자1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쉼터 산일정 정자건립			○	
201	2013년	장안구 장자2동	맘이이쁜맘	늘품누리 합창단			○	
202	2013년	장안구 정자3동	정자마을 마중물	독서토론 동아리운영 및 대회개최			○	
203	2013년	장안구 영화동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	2013 새솔막거리축제			○	
204	2013년	장안구 영화동	(사)수원화성예다(禮茶) 교육원	역사속의다도문화(茶道文化) 와화령전(華寧殿)			○	
205	2013년	장안구 조원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동산교회	놀이가 있는 대추나무골 행복마을 만들기			○	
206	2013년	장안구 조원2동	조원2동 실버 합창단	실버 합창단			○	
207	2013년	장안구 조원2동	조원말 사람들	제2회 이웃 하나되는 달빛음악회			○	
208	2013년	권선구 세류2동	수원세류2동 아줌마각설이풍물단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정있는 마을만들기			○	
209	2013년	권선구 세류3동	세류3동 새마을 협의회	마을 쓰레기문화개선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쓰레기와 함께"			○	
210	2013년	권선구 세류3동	수원사랑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정조로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			○	
211	2013년	권선구 세류3동	수원도시농업사업단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3색 마을만들기'			○	
212	2013년	권선구 평동	고색동 청년회	꿈은 이루어진다' 고색동 문화교육사업			○	
213	2013년	권선구 서둔동	서둔사랑봉사회	농대로 꽃길조성으로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	
214	2013년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상가변영회	일월지구 상가 활성화 및 홍보			○	
215	2013년	권선구 금호동	서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사이좋은어린이집	칠보산 함께하는 육아사랑방			○	
216	2013년	권선구 권선1동	은행나무 권선사랑 열매	은행나무 사랑의 반찬나누기 마을 조성			○	

217	2013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종합시장상인회	마을시장 스토리북 제작				○	
218	2013년	권선구 입북동	수원시화훼협회	에너지절감마을조성				○	
219	2013년	권선구 입북동	수원도시생태농업 네트워크	씨앗도서관				○	
220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동레지던시 운영위원회	행궁동레지던시 오픈데이 & 프리마켓				○	
221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남문 청소년 준비모임 '꾸나'	1기청소년남문동네학교 -팔달문에서 꿈을 꾸자				○	
222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문화기획 감지락	팔부자 마을만들기 이야기				○	
223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아주 경희로운 수원	카프리 데이에서 프리하게 놀자!				○	
224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시장문화사업단	문화와 배움이 일자리로 어우러지는 행궁조성사업				○	
225	2013년	팔달구 매교동	매교동 매교사랑소식지만들기회	주민참여와 소통의마을신문 매교사랑 소식지 만들기				○	
226	2013년	팔달구 매교동	수원골목잡지 사이다클럽	사이다, 여성과 통하다				○	
227	2013년	팔달구 고등동	고등동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위원회	어린이 텃밭가꾸기를 통한 서로돌봄 마을커뮤니티복원				○	
228	2013년	팔달구 고등동	고등사랑	고등사랑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				○	
229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마을 신문추진위원회	화서1동 마을신문 만들기				○	
230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 새마을화서문고	마을 속 품격있는 인문학 영사와의 만남				○	
231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 기후지킴이 추진단	저탄소 녹색마을 그린리더 양성 사업				○	
232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동말주민태양광발전소 추진단	지속가능한 화서1동 솔라빌리지 프로젝트				○	
233	2013년	팔달구 화서2동	화서2동 주민자치위원회	화서2동꽃노인스포츠댄스반				○	
234	2013년	팔달구 화서2동	화서주공4단지아파트	화서주공4단지 이웃사랑 행복 만들기				○	
235	2013년	팔달구 화서2동	꽃피감나무동산어울림	꽃피감나무동산어울림사업				○	
236	2013년	팔달구 지동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지역주민대상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해님달님도서관 친구 찾기'				○	
237	2013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1동 그린힐 (Green Hill)	우만1동 그린힐링(Green Healing) 마을만들기				○	
238	2013년	팔달구 인계동	마을디자이너들의 희망본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239	2013년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길 상인회	장다리길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베토벤 바이어스				○	
240	2013년	영통구 매탄2동	영통시민포럼	매탄동 어린이벼룩시장 & 청소년음악회				○	
241	2013년	영통구 매탄2동	동수원중학교 벽화봉사단	담장 벽화그리기				○	

242	2013년	영통구 원천동	클린아주프로젝트 (C.A.P.)	원천마을 베틀시장			○	
243	2013년	영통구 원천동	필 팜스오케스트라	필 팜스 오케스트라 운영 및 활동			○	
244	2013년	영통구 원천동	수원시새마을부녀회	휴먼시티 녹색가게 운영			○	
245	2013년	영통구 원천동	먼내사랑회	이웃을 찾아가는 먼내사랑회			○	
246	2013년	영통구 영통2동	영통 어린이베틀시장 시민모임	상설 영통 어린이베틀시장			○	
247	2013년	장안구 율천동	율천초교학부모회 봉사단	학교담장 벽화그리기 및 꽃가꾸기			○	
248	2013년	장안구 조원1동	새마을문고 조원1동 분회	워킹맘 마을공부방 운영			○	
249	2013년	장안구 조원2동	조원말 사람들	이웃이 하나되는 어울림 한마당			○	
250	2013년	권선구 새류1동	수인선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수인선 추억있는 거리조성			○	
251	2013년	권선구 구운동	구운 삼환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운동 벽화마을			○	
252	2013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2동 HYO 마을만들기회	권선 효사랑 선실친 캠프운영			○	
253	2013년	팔달구 행궁동	24통 사람들	벽화골목을 아시나요			○	
254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매향مام마로티	매향مام마로티			○	
255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복합문화공간 행궁재	행궁재 문화 사랑			○	
256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대안공간논	커뮤니티 키친			○	
257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화성옥 어울림	담장벽화그리기			○	
258	2013년	팔달구 매산동	매산동 새마을부녀회	코리아드림 다문화한가족 행복더하기			○	
259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사랑 의료봉사단	화서사랑 의료봉사 사업			○	
260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동말꽃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위원회	동말 꽃마을 르네상스 사업			○	
261	2013년	팔달구 화서1동	동말자원순환사업단	자원순환 테마마을 조성			○	
262	2013년	팔달구 지동	마을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	마을시민기자가 찾아가는 '마을르네상스 이야기'			○	
263	2013년	팔달구 우만2동	이주대학교제29대사회과 학 대학학생회'바람'	이주대학생과 함께하는 우만2동 어린이 그린마을리더 아카데미			○	
264	2013년	영통구 매탄1동	자연사랑	선진지견학			○	
265	2013년	영통구 태장동	태장동 사물놀이 동호회	국화축제에따른 태장마을음악회			○	
266	2013년	장안구 정자2동	정자동한두레마을 건강신문 추진위원회	정자동 한두레마을 건강마을신문			○	

267	2013년	권선구 서둔동	더불어 사는 마을 수봉재활원	너나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	
268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화서문로 신흥로 상인협동조합	생태교통으로거듭나는살기 좋은환경마을만들기				○	
269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동 문화재 지킴이 마을	생태교통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알리기				○	
270	2013년	팔달구 행궁동	꿈꾸는 골목길	너, 쓸만한, 우아한 쓰레기				○	
271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신흥2번지 사람들	공간<문화놀이터폼><콘텐츠제작교실 심심>프로그램				○	
272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행복한 그림집	잡동사니 지식대여 도서관				○	
273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이웃을 만나는 자전거(웃자)	자전거 문화탐방(화천 산소길)				○	
274	2013년	우만1동	우만 사랑나눔 사업단	소마니 두부 만들기				○	
275	2013년	팔달구 인계동	인계 꿈 넝쿨 맘	인계동 담길따라 웃음소리 영글고				○	
276	2013년	영통구 영통1동	영통 신흥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의 문화사랑방 북카페 조성				○	
277	2013년	영통구 영통1동	수원영통건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단지 내 노인마을 만들기				○	
278	2013년	영통구 영통2동	술찬 어린이 벼룩시장 시민모임 매홀	술찬 어린이 벼룩시장				○	
279	2013년	영통구 태장동	태장동 주민자치위원회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가는길 조성				○	
280	2013년	영통구 광교동	청출어람	청출어람 공동육아				○	
281	2013년	장안구 을척동	밤밭파크 데이 축제위원회	밤밭·성대 문화의 거리 파크데이 축제				○	
282	2013년	장안구 정자2동	정자동 협동마을 만들기	청소년 랫즈쿱				○	
283	2013년	장안구 정자2동	사회적 경제 강사 모임	마을경제활성화를위한사회적경제교육강사양성사업				○	
284	2013년	장안구 송죽동	아름다운 마을 송죽 16동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학습여행				○	
285	2013년	권선구 금호동	한땀공주	한땀의 바느질로 소통하는 마을				○	
286	2013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2동 마을계획단	안전마을 1번지 권선2동 만들기				○	
287	2013년	권선구 곡선동	곡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위원회	아름다운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288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수원다문화합창단	수원 다문화합창단 창단 공연				○	
289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우리 행궁동 이야기(우동이)	한데우물 어르신 사랑방 축제				○	
290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화서문로 신흥로 상가 사랑회	꽃피는 화서문로 신흥로 명품거리 만들기				○	
291	2013년	팔달구 행궁동	문화사회 多多	잡동사니 지식대여 도서관				○	
292	2013년	팔달구 행궁동	행궁 청년회	행궁 청년회 선진지 견학				○	

293	2013년	팔달구 매교동	교동창작촌	매교동-인문학을 통한 우리 동네 만들기				○	
294	2013년	팔달구 화서2동	2학년 3반 5반 삼박골 사람들	<꽃피> 삼박골 마을 이음				○	
295	2013년	팔달구 화서2동	동네방네 마을학교	함께 알아가는 우리 수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	
296	2013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1동 그린아카데미	우만1동 초록교실				○	
297	2013년	팔달구 우만1동	우만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협의회	우만복지건강마을만들기				○	
298	2013년	팔달구 우만1동	무병장수 우만1동	효소가 살아숨쉬는 우만1동				○	
299	2013년	팔달구 우만2동	우만2동 새마을문고	아름다운 명품 장미마을 지킴이 만들기				○	
300	2013년	팔달구 인계동	다울길 추진위원회	다울길 미소정원 조성사업				○	
301	2013년	영통구 영통2동	영통2동 건강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주민이 만드는 건강마을 영통				○	
302	2014년	장안구 파장동	술밭길사이로	술과 바람의 만남					○
303	2014년	장안구 파장동	길벗 파장동 모임	나눔을 배우는 아동장터					○
304	2014년	장안구 파장동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	마을과 함께 크는 달팽이 어린이집					○
305	2014년	장안구 울천동	영생고등학교 사랑봉사단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등교길 만들기					○
306	2014년	장안구 울천동	울천초교 학부모회 봉사단	밤송이 트로트 합창단					○
307	2014년	장안구 정자3동	청솔 한라 비발디 마을가꿈이	아름답고 꽃 향기 가득한 마을 만들기					○
308	2014년	장안구 영화동	영화2통 마을추진 위원회	깨끗한 안심 마을 만들기					○
309	2014년	장안구 송죽동	성화마을 만들기	성화 빌라 주민 단합 활성화 사업					○
310	2014년	장안구 조원1동	대추골 르네상스	인문화 사랑방					○
311	2014년	장안구 조원2동	조원2동 참빛 합창단	참빛 합창단					○
312	2014년	장안구 조원2동	조원2동 새마을 부녀회	마을과 소통하며 지구를 사랑하자					○
313	2014년	장안구 연무동	상광교동 마을협의회	시민이 함께 하는 시화가 있는 마을					○
314	2014년	권선구 세류2동	쭈쭈꾸러기 작은 도서관	도서관에서 배우는 인생학교					○
315	2014년	권선구 세류3동	수양회	신곡초교 꿈나무 희망 벽화 조형					○
316	2014년	권선구 평동	푸른언덕 좋은 사람들	울림이 있는 푸른 언덕 좋은 사람들					○
317	2014년	권선구 구운동	삼환마을 만들기	삼환 문화 축제					○
318	2014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산 도토리 교실	칠보에서 나누는 환경 인문학					○

319	2014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2동주민자치위원회 (삼삼오오 마을산책회)	삼삼오오 주민마을 산책길 가꾸기				○
320	2014년	권선구 권선2동	권선 자이 e편한세상 아파트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
321	2014년	권선구 곡선동	권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권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습 및 공연				○
322	2014년	팔달구 행궁동	수원 일하는 여성회	아동,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마을 지킴이 양성 교육				○
323	2014년	팔달구 행궁동	생태교육 마을 문화 네트워크	행궁동 골목 되살림 마켓				○
324	2014년	팔달구 고등동	고등동 통장협의회	한 뼉 텃밭 조성사업				○
325	2014년	팔달구 화서1동	해운 굿 프렌드 동아리	행복 특권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326	2014년	팔달구 화서2동	공적 여행 협동조합 마이플레넷	화서마을 보물찾기 프로젝트				○
327	2014년	팔달구 지동	지동 새마을문고회	그림으로 배워보는 우리 마을, 우리 역사				○
328	2014년	팔달구 지동	이웃 문화 연구소	주민주체 문화예술 공동체 프로그램				○
329	2014년	영통구 매탄3동	매탄4지구 연합상가변영회	매여울 꿈나무 어울림 한마당				○
330	2014년	영통구 매탄4동	수원 여성회 영통지역분과	나눔과 어울림 느티나무 마을축제, 베품시장				○
331	2014년	영통구 매탄4동	시시콜콜 산드래미	시시콜콜 산드래미 마을신문만들기				○
332	2014년	영통구 매탄4동	매탄4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산드래미 문화사라방 운영				○
333	2014년	영통구 매탄4동	나눔 도서관	사회양극화해결맞춤대물 림방지위한나눔, 에듀투게더				○
334	2014년	영통구 원천동	해피블루밍	행복한 다문화 교실 운영				○
335	2014년	영통구 광고동	창조 광고 추진위원회	교류와 친목이 함께 하는 내고향 광고				○
336	2014년	영통구 광고동	광고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화 체육분과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
337	2014년	영통구 영통1동	영통주민 연합	공동육아 돌봄 프로젝트				○
338	2014년	권선구 서둔동	서둔행복마을센터	서둔 행복 마을 만들기				○
339	2014년	권선구 금호동	칠보산마을연구소	스타트!! 가슴 뛰는 칠보산 대안 마을				○
340	2014년	팔달구 화서1동	화서1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화서사랑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
341	2014년	팔달구 인계동	인계올레 추진단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계올레" 조성				○



**수원시 마을만들기 과제**

**- 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운용을 중심으로 -**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ISBN 979-11-85686-14-1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443-810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Tel : 031-220-8001 / Fax : 031-220-8000  
[www.suwon.re.kr](http://www.suwon.re.kr)

비매품

